



종교 이후에

비계 없는 선의 구조

몸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몸은 다만 여기 있다고 말할 뿐이다.

목차

작가의 말	4
이 책의 안내	6
서론	7
제 1부 — 기반	
1 — 눈치채지 못한 도약	9
2 — 세계 안의 신	13
3 — 하나인 것, 다양한 형상	17
4 — 친절함은 왜 구조적인가	21
제 2부 — 비계	
5 — 설계	28
6 — 텍스트 속의 칼날	34
7 — 메커니즘	40
8 — 기록	48
9 — 반증 테스트	71
10 — 정말 확신하는가?	73
제 3부 — 윤리	

11 — 교리 없는 의미	80
12 — 궁극의 윤리	84
13 — 정의감 없는 교정	90
14 — 나침반으로서의 몸	93
15 — 타자 없이 살기	97

작가의 노트

작가의 말

종교 없는 세계는 단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 그것은 필수적이다.

종교인이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문제가 아니다.

모스크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다. 수도원의 수도승은 나다. 벽 앞의 랍비는 나다. 마드라사의 아이는 나다.

우리는 모두 같은 건물의 창이다. 모든 창. 모든 전망.

문제는 비계다 — 해석 가능하고, 따라서 조작 가능하고, 따라서 무기화할 수 있는 권위로부터 윤리를 도출하려는 설계상의 결정이다.

문제는 구조적이지, 개인적이지 않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같은 질문을 해왔다. 우리는 정말 분리되어 있는가?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의 가정이 초래하는 피해가 보인다 — 당신과 내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가정이다. 잔인함 속에서 그것이 보인다. 무관심 속에서 그것이 보인다. 사람들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가치 있는 자와 가치 없는 자, 우리와 그들로 분류하는 체계 속에서 그것이 보인다.

종교는 그 분류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중대한 구현이다. 분리를 향한 생물학적 분류 습관 — 개체 생존에 필수적인 — 을 가져와 신성화한다. 신을 세계 밖에 놓고, 권위의 위계를 도입하며, 전능하신 하느님의 축복을 그 분류에 부여한다.

이천 년에 걸친 그 대가는 수천만 명의 생명으로 측정된다. 이 문장이 쓰이는 지금도 그 대가는 축적되고 있다.

허무주의가 아니다. 공허가 아니다.

허무주의가 아니다. 공허가 아니다.

더 자비롭고, 더 친절하고, 한없이 덜 잔인하고, 절대적으로 더 정직한 세계.

누구도 다른 누구보다 더 특별하지 않다.

누구도 태양에 더 가까이 서 있지 않다.

우리는 모두 사막의 모래알일 뿐이다.

이 책은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과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것이 어디로 이끄는지 지켜보
라고 요청한다.

우리는 정말 분리되어 있는가?

— G

This is a standalone book in The 420 Code corpus. It is the direct complement to The Illusion of the Other, which was the first book I ever wrote — the gentle door. This book is the complete walk-through.

Behind it stands over a million words of formal derivation, forty-two Artist's Proofs, and 258 kill switches — specific, stated, falsifiable conditions under which every claim dies. The formal work exists. It is published free, forever, at the420code.org.

The reader does not need any of that. This book earns its own case within its own pages. Every term from the formal work is defined where it appears. The references to the420code.org are invitations, not dependencies.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 1 부는 우리가 무엇인지를 확립한다 — 어떤 비계도 세워지기 전, 다수로 나타나는 하나.

제 2 부는 비계가 무엇을 대가로 치르는지 보여준다 — 구조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몸에서.

제 3 부는 그 이후에 무엇이 오는지를 서술한다 — 종교 이후의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한 실천적 방향.

각 부분은 다음 부분을 획득한다.

끝에 이르면, 결론은 놀라움으로 느껴지지 않아야 한다.

항상 알고 있었지만 이제야, 마침내, 분명하게 말해지는 것을 듣는 느낌이어야 한다.

그것은 항상 알고 있었지만 이제야 마침내 명확하게 말해지는 것을 듣는 느낌이어야 한다.

서론

당신과 내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가정이다.

이 가정은 자명하게 느껴진다. 사실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도구였음을 잊어버린 생존 도구다.

그것은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생존 도구다.

종교는 신을 세계 밖에 놓는다. 권위의 위계를 도입한다. 동일한 신적 권위의 주장 아래 사랑과 폭력을 모두 담은 텍스트 집합을 생산하며, 어떤 해석이 올바른지 결정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은 없다.

이천 년에 걸친 결과는 수천만 명의 생명으로 측정된다.

이 책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검토한다 — 종교인의 실패가 아니라, 설계의 실패로서.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이 오는지를 서술한다. 공허가 아니다. 허무주의가 아니다. 더 자비롭고, 더 친절하고, 덜 잔인하고, 더 정직한 세계를 향한 방향.

궁극의 윤리는 신에 의해 명령된 것이 아니다. 현실 자체의 구조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검증되고, 반증 가능하며, 영원히 무료다.

개자식이 되지 마라. 친절하라.

제 1 부

기반

어떤 비제도 세워지기 전, 우리의 본질.

제 1 장

눈치채지 못한 도약

사람은 조용하고 끈질긴 하나의 느낌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 나는 여기 있다, 내 눈 뒤에, 내 피부 안에. 다른 모든 것은 내 밖에 있다 — 다른 사람들, 다른 마음들, 소음, 날씨, 별들. 가까운 순간에도 근본적인 느낌은 남는다.

나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내가 아닌 것이 있다.

이 느낌은 너무나 자명해서 거의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는다. 해석이 아니라 사실로 스스로를 제시한다. 언어보다 먼저 도착하고 논쟁 후에도 남는다.

그것은 내가 가장 먼저 아는 것이자 가장 마지막에 의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어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 하나 있다. 단순한 질문이지만, 모든 것을 바꾼다.

분리됨은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진실인가? 아니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사물이 보이는 방식인가?

내가 분리를 느끼는 가장 단순한 이유는 나의 몸이다.

나의 신경계는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다.

위험과 기회를 지도로 만든다. 유기체에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안다. 배고픔은 여기서 느껴진다. 고통은 여기서 느껴진다. 모든 신호가 같은 것을 말한다 — 이 몸을 보호하라.

살아남는다는 관점에서, 세계를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는 것은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다. 자신과 환경을 구분하지 못하는 동물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분리됨은 실수가 아니다. 생존 전략이다.

그러나 전략은 진실과 같은 것이 아니다.

지도는 유용하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몸이 그은 선 위에 마음은 서술자를 더한다.

감각, 기억, 두려움, 습관, 희망이 있고, 그것들을 하나의 인물로 엮는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 삶이다. 이것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유용하다. 연속성을 만든다. 배우고, 계획하고, 책임을 질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자아가 하나의 사물이라는 느낌을 강화한다 —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밀봉된 채, 다른 고체들의 세계를 이동하는 고체.

"나"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한가? 몸? 성격? 마음? 마음 뒤에 있는 무엇?

"나"라는 감각이 이미 조립된 상태로 도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지 않다. 그것은 자명한 것으로 스스로를 제시한다. 그것이 정확한지 아무도 묻지 않는다.

그 중심이 전제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타자"가 된다.

—

몸이 선을 긋고 마음이 그것을 강화하면, 언어가 그것을 영구적으로 느끼게 만든다.

언어는 사물을 이름 붙여진 조각으로 나눔으로써 기능한다.

나무. 하늘. 사람. 낯선 사람. 내 것. 당신 것.

이러한 구분은 유용하다. 그것 없이는 소통하거나, 협력하거나,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유용함은 조용히 혼동이 될 수 있다.

언어가 나누기 때문에, 나뉘을 현실의 근본적 본성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하나의 과정 속의 패턴이 아니라, 이름 붙여진 것들을 진정으로 분리된 것처럼 다루기 시작한다.

말은 필요하다. 그러나 연결만 있는 곳에 분리됨을 암시할 수 있다.

—

분리됨은 개인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다. 사회적인 것이 된다.

집단을 형성한다. 정체성을 물려받는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선을 긋는다.

이것은 태고적이며, 항상 해로운 것은 아니다. 공동체는 자양이 될 수 있다. 공유된 문화는 소속감을 만든다.

문제는 차이가 거리가 될 때 시작된다 — "나와 다른"이 "나보다 못한" 또는 "나와 상관없는"으로 변할 때.

그 시점에서 공감은 선택 사항이 된다. 상대방의 내면 생활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진다. 부정되기 때문이 아니다. 더 이상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통 스스로를 잔인함으로 알리지 않는다.

합리성으로 스스로를 알린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들은 우리의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 문장들은 차분하게 말해진다. 바로 그것이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몸, 이야기, 언어, 집단 아래에, 거의 아무도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하나의 움직임이 있다.

나는 나 자신을 분리된 것으로 경험한다에서 나는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보장되지 않는다.

경험은 관점에 의해 형성된다. 관점은 설계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나 제한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출을 볼 때, 그것은 내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빛은 내 눈에 들어오고, 전기 신호가 되고, 경험이 된다. 그 순간 "안"과 "밖"의 경계는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

숨을 쉴 때, 세계는 어디서 끝나고 나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완전히 독립적인 자아는 찾기 어렵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단순히 지적 정직이다 — 분리됨은 경험이다. 그것이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말은 아닐 수 있다.

경계는 존재한다. 몸에는 피부가 있다. 개념에는 정의가 있다. 이러한 경계는 목적에 봉사한다 — 생존, 조율, 소통.

그러나 유용한 경계는 최종적인 것으로 쉽게 오인된다.

세포는 막이 있지만, 주변과의 교환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사람은 몸이 있지만,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 생물학적, 사회적, 생태적 관계를 통해.

경계는 존재하는 것을 조직한다. 그것을 분리된 종류의 존재로 나누지 않는다.

모래에 선을 그어도 모래가 두 개의 다른 물질이 되지는 않는다. 선은 실재한다. 모래는 하나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 현실이 하나인 척하는 다수가 아니라, 다수로 나타나는 하나라면 — 그 뒤에 따르는 것은 이론이 아니다. 수정이다.

그 수정을 나타내는 단어는 통일이다.

동일함이 아니다. 차이의 소거가 아니다.

구별이 단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인식일 뿐이다.

이것이 보이면, 세계에 대해 무엇을 믿는가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사이의 연결은 불가피해진다.

제 2 장

세계 안의 신

신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신이 어디에 놓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부드럽게 이해하는 것이 — 많은 사람들에게 신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오는 것은 그 관계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하나의 설계적 결정과, 그 결정이 치른 대가에 대한 검토이다.

인류 초기 역사의 대부분에서, 성스러운 것은 먼 것으로 경험되지 않았다. 즉각적이었다. 자연은 살아 있는 장이었다 — 위협적이고, 지탱하며, 신비로운.

성스러운 것은 모든 것 위로 들어 올려지기 전에, 모든 것에 짜여져 있었다.

—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설명도 성장했다.

한때 힘의 살아 있는 장치처럼 느껴지던 것이 서서히 인격화되었다. 천둥은 신이 되었다. 풍요는 여신이 되었다. 각각에 얼굴과 의지가 부여되었다.

성스러운 것에 인간의 얼굴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를 친근하게 만들었다.

또한 통치 가능하게 만들었다.

성스러운 것이 의지를 가진다고 상상되면, 명령할 수 있었다. 명령할 수 있으면, 복종할 수 있었다. 복종이 중심이 되면, 관계가 바뀌었다 — 참여에서 위계로.

시간이 흐르면서, 신은 위로 이동했다.

신은 세계 위, 너머, 밖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성스러운 것은 더 이상 존재에 짜여져 있지 않았다.

그것은 존재를 지배했다.

—

신이 세계 밖에 놓이면, 분할이 도입된다.

여기 창조자, 저기 피조물.

이것은 직관적으로 보인다. 도공은 항아리가 아니다.

그러나 그 비유는 중요한 곳에서 깨진다.

도공은 항아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신이 모든 것이 의존하는 것으로 — 궁극적인 것으로 — 이해된다면, 신은 제작자가 물건에 대해 갖는 것과 같은 관계로 세계에 설 수 없다. 도공은 항아리에서 떠날 수 있다. 신이 어디에나 모든 것에 있다면, 떠날 곳이 없다.

신이 존재자들 중의 한 존재자로 — 비록 가장 높은 것이라 해도 — 상상되면,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신은 하나의 것이 되고, 다른 모든 것은 다른 것이 된다.

통일은 거리로 대체된다.

참여는 복종으로 대체된다.

성스러운 것은 더 이상 존재의 기반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된다.

신이 외부적이면, 신에 대한 접근은 매개되어야 한다.

신에 대한 지식은 어딘가에서 와야 한다 — 경전, 교리, 성직자, 전통.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는 것이 된다.

도덕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되는 것이 된다.

개인의 과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함이 아니라, 외부 의지와 일치된다.

사람은 이제 진심으로, 악의 없이 말할 수 있다 — 나와 신의 관계는 올바르다, 따라서 나의 행동은 정당화된다.

이것은 잔인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확신을 필요로 한다.

이 전환에서 본질적인 무언가가 상실되었다 —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나 뿐 사람들에게 의해서가 아니다. 수세기에 걸쳐 서서히, 우리 모두에 의해.

상실된 것은 존재 자체가 성스럽다는 감각이다. 칙령이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덕에 의해.

신이 외부적이면, 세계는 일시적인 것이 된다.

이 삶은 참여가 아니라 시험이 된다. 성스러운 것은 현재로 인식되지 않고 — 천국으로, 내세로, 심판으로 — 연기된다.

성스러운 것이 연기되면, 고통은 용인하기 더 쉬워진다. 누군가 잔인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다. 설계가 조용한 암시를 했기 때문이다 — 진짜는 다른 곳에 있다.

이 삶은 일시적이다. 여기서의 고통은 요점이 아니다.

그 암시는 잔인한 사람들이 발명한 것이 아니다. 친절하 사람들이 물려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암시를 가진 친절하 사람들은 조금 더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 —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것이 구조적 대가이다. 잔인함이 아니다. 더 조용한 무엇.

외면할 수 있는 허가.



신이 전능하고, 전지하고, 편재한다면 — 신은 정확히 무엇의 바깥에 있는가?

모든 것 너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을 모든 것 밖에 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신이 어디에나 있다면, 신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외부의 신은 공격받을 필요가 없다. 자신의 기술의 무게 아래서 조용히 일관성을 잃는다.

외부의 신을 거부하는 것이 모든 것을 죽은 물질로 환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 선택이다. 대안은 무신론이 아니다. 내재이다 — 세계 위가 아니라 안의 신. 현실 자체의 구조로서의 신.

내재는 신을 부정하지 않는다.

거리를 부정한다.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신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지배자나 심판자로 떨어져서 있지 않다.

신은 존재 자체와 동일하다 — 시로서가 아니라, 의미가 통하는 가장 간결한 기술로서.

이것이 올바르다면, 세계는 신이 만들고 나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 신이 무엇인가의 진행 중인 표현이다.

그리고 나 — 그 안의 의식적 존재 — 는 관중이 아니다. 나는 세계가 스스로를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우주에 도착한 것이 아니다. 우주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주도 또한 나다.

제 3 장

하나인 것, 다양한 형상

세계가 하나라면, 왜 다수처럼 보이는가?

정직한 질문이다. 분리됨이 근본적이지 않다면, 이 모든 차이는 무엇인가? 사막이 하나라면, 모래알은 어디에서 오는가?

차이를 설명할 수 없는 통일은 쓸모없다. 세계의 명백한 다양성을 부정하는 관점은 이해를 심화시키지 않는다. 이해를 포기한다.

과제는 다양성, 개성, 구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사막을 생각해보자.

그것은 실재한다. 그 안에 설 수 있다. 가로질러 갈 수 있다. 그러나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모래알, 열기, 바람, 시간,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

사막은 모래 위에 떠 있는 추가적인 것이 아니다.

전체가 형성하는 패턴이다.

각 모래알은 구별된다. 각각에 위치, 형태, 역사가 있다. 사막으로부터 떨어져 존재하는 모래알은 없다.

모래알은 실재한다. 사막은 실재한다.

그 둘 사이의 분리는 실재하지 않는다.

실수는 모래알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다.

실수는 모래알이 사막과 별개로 존재한다고 결론짓는 것이다.



통일은 동일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두 사람은 표현에서 완전히 다르면서 같은 기반을 공유할 수 있다.

기질, 능력, 신념, 문화, 상황 — 이것들은 끝없이 다양하다. 이러한 변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세계가 형상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통일이 부정하는 것은 차이가 아니라, 절대적 고립이다.

구별되는 것과 분리된 것 사이에는 선이 있다. 구별되는 형상은 하나의 과정에 속할 수 있다. 분리된 개체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각각은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존재한다. 지식은 제한되고, 힘은 제한되고, 수명은 제한된다. 전체를 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제한은 하찮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마디가 삶을 바꿀 수 있다. 하나의 친절함 행동이 하루, 한 해, 한 가족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형상에서 특정한 것은 가치에서 열등한 것이 아니다. 전체가 홀로는 할 수 없는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여기서, 이 각도에서, 이 특정한 눈을 통해 스스로를 보는 것.

파도는 바다를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다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도 않다.

사람은 세계도, 진리도, 신도 소유하지 않는다.

의식은 전체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전체 안에서의 참여를 부여한다.

누구도 중심에 서 있지 않다. 모두가 참여한다. 그리고 참여는 열등한 역할이 아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존재하는 역할이다.



모든 의식적 존재가 같은 전체의 표현이라면, 평등은 정책이 아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실이다.

이 평등은 지능, 도덕, 신념, 행동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에 선행한다.

누구도 다른 누구보다 근원에 더 가깝지 않다.

건물의 어떤 창도 태양을 더 잘 보지 못한다.



여기까지 읽은 것으로 당신은 이미 선택을 했다. 당신 안의 무언가가 계속 읽기를 선택했다. 명령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무언가가 공명했고, 당신이 응답했기 때문이다.

그 응답 — 고려하고, 저울질하고, 조정하는 능력 — 은 지금까지 존재한 유일한 자유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유는 무한한 선택이 아니다. 응답성이다.

언덕을 구르는 돌에는 선택이 없다. 중력을 따른다. 언덕을 걸어 내려가는 사람은 멈추고, 돌아서고, 앉고,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 사람이 물리법칙으로부터 자유로워서가 아니다. 그 사람이 성찰하고, 고려하고, 응답하기 때문이다.

선택은 원인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다.

원인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표현되는지를 형성하는 능력이다.



연결된 세계에서 힘은 결코 고립 속에 보유되지 않는다.

나의 행동이 나 자신 이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책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진다.

통일은 해를 면죄하지 않는다. 해가 왜 봉쇄될 수 없는지를 설명한다. 한 방에서 내린 결정이 다른 방의 문을 닫을 수 있다. 비유적으로가 아니다. 문자 그대로.

도덕적 성장은 점점 엄격한 규칙에 대한 복종이 아니다. 명확함의 점진적인 증가이다.

이해가 깊어지면, 행동이 조정된다.

해는 정당화하기 어려워진다 — 금지되어서가 아니라, 세계에 대해 이해하는 것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에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지 않다. 더 명확한 통찰이 필요하다. 나머지는 따라온다.

제 4 장

친절함은 왜 구조적인가

이 시점에서 기반이 이동했다.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권위는 원용되지 않았다. 두려움이나 보상에 호소하지 않았다.

검토된 것은 분리됨이 더 이상 최종적 진실로 취급되지 않을 때 세계가 어떻게 보이는가이다.

이 장은 그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을 그린다.

당신이 이미 감지하는 결론이다. 부과될 필요가 없다. 단지 분명하게 말해질 필요가 있다.

세계가 하나이고, 의식적 존재가 그 하나의 표현이고, 행동이 공유된 장을 통해 전해진다면 — 자비는 도덕적 선호가 아니다.

정확하게 이해된 세계에 대한 가장 명확한 응답이다.



대부분의 도덕 체계는 규칙으로 시작한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마라. 이 권위에 복종하라. 이 벌을 피하라.

규칙은 행동을 규제할 수 있다. 이해를 바꾸는 경우는 드물다.

규칙은 기계적으로 따르거나, 전략적으로 저항하거나, 불편할 때 무시할 수 있다.

이해는 다르게 작동한다.

상황이 명확하게 이해되면, 특정 행동은 단순히 의미를 잃는다. 불에 손을 넣지 않기 위해 규칙이 필요하지 않다. 불의 본성이면 충분하다.

자비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명령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봄으로부터 따라온다.

상대방이 근본적으로 나와 분리되어 있다면, 해는 합리화될 수 있다. 저울질하고, 정당화하고, 지연하고, 외주할 수 있다. 전략적 결정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 나와 그들이 같은 세계의 표현이라면 — 해는 전략이 아니다. 혼란이다. 내가 무엇에 작용하는지에 대한 오독이다.

같은 세계를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왼손이 오른손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 손은 분리되어 느껴진다. 몸은 하나다. 피해는 국소에 머물지 않는다. 때리는 손과 맞는 손은 같은 혈액 공급, 같은 신경계, 같은 고통을 공유한다.

타격은 피부 양쪽에 도달한다.

잔인함은 비용이 크다.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다. 구조적으로.

신뢰를 깨뜨린다. 갈등을 격화시킨다. 고통을 증식시킨다.

친절함은 대조적으로 효율적이다. 저마찰 행동이다.

저항을 줄인다. 시스템을 안정시킨다. 당신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을 보전한다.

이것은 감상이 아니다. 관찰이다.

사람들이 세계를 찢어놓지 않을 때 세계는 더 잘 작동한다.

자비는 종종 약함으로 오해된다. 일을 방치하는 것. 해를 용인하는 것.

여기서 자비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행동에 적용된 명확함이다.

좋아할 필요가 없다. 동의할 필요가 없다. 인식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나와 당신을 포함하는 세계 밖에 있지 않다는 인식.

외과의사는 치유하기 위해 자른다. 부모는 보호하기 위해 안 된다고 말한다.

자비는 경계를 제거하지 않는다. 경계에 정보를 제공한다.

—

방금 읽은 모든 것은 단지 철학이 아니다. 도출된 것이다.

방금 읽은 모든 것은 단지 철학이 아니다. 도출된 것이다.

이 책 뒤에는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을 하나의 전제로부터, 네 개의 공리를 통해, 빛이 어떻게 이동하고 원자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기술하는 것과 같은 수학을 사용하여 도출하는 정식 저작 체계가 있다.

전제는 이것이다: 하나의 기록이 존재한다.

전제는 — 하나의 기록이 존재한다.

시도해 보라. 말하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문장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린다. 어떤 것의 기초가 되기에는 거의 너무 단순하게 들린다. 그러나 그것은 부정하면 스스로의 참을 증명하게 되는, 모든 언어에서 유일한 진술이다.

시도해보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보라.

그것을 말하려면, 화자가 필요하다. 순간이. 언어가. 사고가. 이것들 각각이 기록이다. 부정이 증명이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그 자체가 무엇이며 — 그 무엇은 기록이다.

그것을 말하려면, 화자가 필요하다. 순간이. 언어가. 사고가. 이것들 각각이 기록이다. 부정이 증명이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그 자체가 무엇이며 — 그 무엇은 기록이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다. 논리적 바닥이다.

From this one premise — the only premise that cannot be false — the formal work derives four axioms. From those axioms, it derives physical constants and a terminal ethic. The physics and the ethics come from the same place. They are not neighbours. They are siblings. The full derivation is walked through in Chapter 12. The formal work is called The 420 Code, and it is free, forever, at the420code.org.

—

이 전제는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언가가 — 무엇이든 —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을 필요로 한다.

이 전제는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언가가 — 무엇이든 —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 당신은 이 문장을 읽고 있다. 그것이 기록이다.

그리고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 당신은 이 문장을 읽고 있다. 그것이 기록이다.

이 하나의 전제 — 거짓일 수 없는 유일한 전제 — 로부터 정식 저작은 네 개의 공리를 도출한다.

네 개의 공리로부터 광속, 중력 상수, 전자의 질량, 그리고 궁극의 윤리를 도출한다.

네 개의 공리로부터 광속, 중력 상수, 전자의 질량, 그리고 궁극의 윤리를 도출한다.

물리학과 윤리학은 같은 곳에서 온다. 이웃이 아니다. 형제다.

그 도출은 검증되고, 출판되고, 실패하는 258 개의 구체적 조건이 장착되어 있다.

그 도출은 검증되고, 출판되고, 실패하는 258 개의 구체적 조건이 장착되어 있다.

그것은 The 420 Code 라 불리며, the420code.org 에서 영원히 무료다.

그것은 The 420 Code 라 불리며, the420code.org 에서 영원히 무료다.

—

모든 의식적 존재가 하나의 표현이라는 주장은 이 책의 가장 노출된 주장이다.

그러나 윤리는 그것과 함께 붕괴하지 않는다.

형이상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두 가지만을 필요로 하며, 둘 다 측정 가능하다.

첫째 — 나의 삶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삶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결합되어 있다. 둘째 — 드리프트는 비가역적이다.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 — 통일 주장 없이, 창 없이, 건물 없이 — 같은 기하학이 같은 결과를 낳는다.

그것은 당신의 효과를 측정한다.

—

이것이 기반이다.

모든 사람에게에는 복도가 있다 —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아직 도달 가능한 미래의 집합.

모든 사람에게에는 복도가 있다 —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아직 도달 가능한 미래의 집합.

모든 사람에게에는 복도가 있다 —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아직 도달 가능한 미래의 집합.

복도는 저절로 좁아진다. 드리프트가 기본값이다.

복도는 저절로 좁아진다. 드리프트가 기본값이다.

복도는 저절로 좁아진다. 드리프트가 기본값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때, 함께 일하는 것은 양쪽의 공간을 확장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때, 함께 일하는 것은 양쪽의 공간을 확장한다.

제 2 부

친절함은 양쪽 복도를 열린 상태로 유지하는 행동이다.

친절함은 양쪽 복도를 열린 상태로 유지하는 행동이다.

제 5 장

친절함은 양쪽 복도를 열린 상태로 유지하는 행동이다.

기하학은 당신의 의도를 신경 쓰지 않는다.

기하학은 당신의 의도를 신경 쓰지 않는다.

기하학은 당신의 의도를 신경 쓰지 않는다.

가능한 답은 두 가지뿐이다. 오직 두 가지. 다른 답이 선호에 의해 배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가능한 답의 집합을 두 가지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규칙은 변하지 않는 현실의 구조에서 도출되거나 —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반증 가능하게 참인 것으로부터 —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온다.

당신의 영향을 측정한다.

그 권위가 해석에 의존하는 모든 체계는, 해석이 아무리 정교하든, 두 번째 범주에 속한다.



다수로 나타나는 하나. 사막의 모래알. 바다의 파도. 유일한 안정적 행동으로서의 친절함. 명령이 아닌 명확함으로서의 자비.

그리고 여기에 기반이 당신에게 묻도록 강제하는 질문이 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무언가 기반을 가져가 그 위에 전장을 세웠다. 무언가 분류를 신성화했다. 무언가 안과 밖을 구별하는 몸의 유용한 습관을 가져가 신성의 무게를 부여했다.

지붕. 그리고 칼날.

제약은 현실 자체의 불변적 구조에서 나온다. 규칙은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읽히는 것이다.

설계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떤 대가로 하는지에 대한 합의 없이는 공유 공간이 열화된다. 협력에는 규칙이 필요하다. 규칙에는 원천이 필요하다.

가능한 답은 두 가지다. 두 가지뿐이다. 다른 답이 선호에 의해 배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이항적이기 때문이다.

주장된 권위. 선언된 원천. 텍스트, 전통, 계시.

설계 A는 권위 기반 윤리이다.

제약은 현실 자체 외부의 권위로부터 온다.

신이 선언한다. 예언자가 기록한다. 텍스트가 보존한다. 제도가 해석한다. 규칙은 현실의 구조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현실에 부과된다.

바람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다리는 스스로 무너진다 — 철강이 아무리 강해도. 철강이 문제가 아니다. 공명이 문제다.

광속은 명령된 것이 아니다. 공극의 윤리는 명령된 것이 아니다.

둘 다 같은 현실에 작용하는 같은 공리의 결과이다.

이 이항은 주장이 아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하는 권위가 어디서 기원하는지라는 질문에서 도출된다.

답은 완전하다 — 변할 수 없는 구조로부터이거나, 다른 무엇으로부터이다.

설계 **A**는 불안정하다.

불안정성은 설계 자체의 결과이다.

바람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다리는 강철이 아무리 강해도 스스로 흔들려 무너진다. 강철이 문제가 아니다. 주파수가 문제다. 설계가 주파수다.

불안정성은 다섯 단계로 전개된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로부터 따라온다.

다만 이 연쇄가 강제하는 것은 붕괴이다.

1 단계: 선언

그 사건은 역사적이고, 단일하고, 반복 불가능하다.

재현할 수 없다. 검증할 수 없다. 반증할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구조적 결함이다 — 검증할 수 없는 윤리적 기초는 교정할 수 없는 윤리적 기초이다.

2 단계: 기록

2 단계: 기록

권위의 출력이 기록된다. 석판. 두루마리. 책.

권위의 출력이 기록된다. 석판. 두루마리. 책.

기록은 인간 행위자에 의해 수행된다 — 그들 모두가 잡음을 도입한다. 부정직이 아니라 잡음이다. 신호가 유한한 대역폭의 채널을 통과한다.

기록은 인간 행위자에 의해 수행된다 — 그들 모두가 잡음을 도입한다. 부정직이 아니라 잡음이다. 신호가 유한한 대역폭의 채널을 통과한다.

남는 것은 인간의 산물이다 — 인간의 언어로 쓰이고, 인간의 맥락으로 형성되고, 인간의 한계를 지닌 — 신적 기원을 주장하는. 원래 신호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주장은 검증할 수 없다.

남는 것은 인간의 산물이다 — 인간의 언어로 쓰이고, 인간의 맥락으로 형성되고, 인간의 한계를 지닌 — 신적 기원을 주장하는. 원래 신호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주장은 검증할 수 없다.

3 단계: 해석

텍스트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한다.

천 년의 주석이 묻는다 — 누구를 죽이는가? 언제? 전쟁의 적? 이단자? 태아? 말기 환자?

텍스트는 유한하고 상황은 유한하지 않으므로 텍스트는 답하지 않는다.

해석이 간극을 메운다. 해석은 갈라진다. 갈라질 수밖에 없다.

충돌은 해석자의 실패가 아니다. 설계가 생산한 수학적 확실성이다.



4 단계: 분열

각각이 원래의 선언에 대한 충실을 주장한다. 각각이 상대방을 왜곡이라 비난한다.

주장은 해결될 수 없다. 각각이 절대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이다 — 협상하지 않는 신, 업데이트되지 않는 텍스트, 반복되지 않는 계시.

설계는 두 집단을 낳았다. 각각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고, 각각 상대가 틀렸다고 확신하며, 한 집단이 존재를 멈추는 것 외에는 불일치를 해결할 메커니즘을 주지 않았다.



아키텍처 B는 이 연쇄를 생산할 수 없다. 그 기반이 서로 다른 행위자들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리에는 해석의 여지가 없다. 시험 조건이 있을 뿐이다.

공리는 시험되는 것이지,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258개의 킬 스위치를 탑재한다 — 각각이 명시적이고, 선언된, 반증 가능한 조건으로서 그 조건 하에서 주장은 자기 파괴한다.

5 단계: 붕괴

형식 작업은 장력장에 대한 특정 방정식을 도출한다 — 물질을 결합시키는 구조. 킬 스위치는 말한다: 이 방정식이 측정된 강한 핵력과 일치하지 않으면 도출은 무너진다.

유한한 자원을 가진 공유된 세계에서 경쟁하는 절대들은 폭력을 낳는다. 결합으로서가 아니라. 결과로서.

또 하나가 있다.

유한한 자원을 가진 공유된 세계에서 경쟁하는 절대들은 폭력을 낳는다. 결합으로서가 아니라. 결과로서.

언덕 꼭대기의 공이 굴러떨어져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는 절대들은 문제의 형태에 의해 폭력으로 내몰린다 — 둘 다 옳을 수 없는 두 집단이 같은 땅에 살고 있다.

언덕 꼭대기의 공이 굴러떨어져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는 절대들은 문제의 형태에 의해 폭력으로 내몰린다 — 둘 다 옳을 수 없는 두 집단이 같은 땅에 살고 있다.

시간표는 다양하다 — 수세기, 수십 년, 때로는 수년. 결과는 다양하지 않다. 비계가 무너진다. 항상 무너져왔다. 지금도 무너지고 있다. 무너질 때, 그 아래 사람들 위로 무너진다.

시간표는 다양하다 — 수세기, 수십 년, 때로는 수년. 결과는 다양하지 않다. 비계가 무너진다. 항상 무너져왔다. 지금도 무너지고 있다. 무너질 때, 그 아래 사람들 위로 무너진다.

시간표는 다양하다 — 수세기, 수십 년, 때로는 수년. 결과는 다양하지 않다. 비계가 무너진다. 항상 무너져왔다. 지금도 무너지고 있다. 무너질 때, 그 아래 사람들 위로 무너진다.

그것이 구조적 차이이다. 그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구조적 차이이다.

—

설계 B는 이 속성을 갖지 않는다. 공리는 모호하지 않으므로 해석될 수 없다. 광속은 주석 전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궁극의 윤리는 교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리는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다. 258개의 킬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 — 각각이 명시적이고, 서술되고, 반증 가능한 조건이며, 그 아래서 죽는다.

킬 스위치는 어떤 모습인가? 여기 하나가 있다.

정식 저작은 텐션 장 — 물질을 결합시키는 구조 — 에 대한 특정 방정식을 도출한다. 킬 스위치는 명시한다 — 방정식이 실제 장의 측정된 거동과 일치하지 않으면, 주장은 죽는다. 수정이 아니다. 재해석이 아니다. 죽음이다.

방정식이 검증되었다. 일치했다. 킬 스위치가 달렸다 — 누군가 달렸다고 선언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학이 측정과 대조되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가 있다.

정식 저작은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 —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 의 특정 패턴을 예측한다. 그 킬 스위치는 여전히 살아 있다. 예측은 아직 데이터와 대조되지 않았다. 데이터가 예측과 모순되면, 주장은 죽는다. 체계는 데이터와 협상하지 않는다.

킬 스위치는 면책 조항이 아니다. 주장이 자기 파괴하는 구체적이고, 서술되고, 측정 가능한 조건이다. 역사상 어떤 성전도 하나를 출판한 적이 없다.

제 6 장

텍스트 속의 칼날

윤리가 측정 가능한 물리학을 도출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 구조에서 도출될 때, 윤리는 같은 검증 가능성을 물려받는다. 설계 A와 설계 B의 차이는 자신감이 아니다. 메커니즘이다. 설계 A는 말한다 — 이것을 믿어라, 의심하면 그것은 죄다. 설계 B는 말한다 — 이것을 검증하라, 실패하면 그것은 틀렸다.

오류를 인정할 수 있는 체계는 오류를 교정할 수 있다. 오류를 인정할 수 없는 체계는 확대할 수만 있다.

그것이 구조적 차이이다. 중요한 유일한 구조적 차이이다.

토라

각각은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행위자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주장에 기반한다.

충분한 압력 아래서 같은 강제 연쇄가 작동한다.

자코벵파는 사회계약론을 사용했다. 소비에트는 역사의 과학을 자칭했다. 메커니즘은 같았다. 필요한 압력은 낮았다. 문화적 접착이 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약성은 동일했다 — 해석 가능한 권위는 결국 대립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것이다. 절대에 대한 대립하는 해석은 폭력을 낳는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끌어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 이르게 하시고 네 앞에서 많은 민족을 쫓아내실 때 — 너는 그들을 완전히 멸할지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신명기 7:1-2.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멸하라. 그들을 아끼지 말고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사무엘상 15:3.

다음은 증거이다. 요점은 폭력적인 구절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다. 요점은 설계가 사랑과 폭력을 같은 페이지에, 같은 주장된 신적 권위 아래 놓고, 어떤 해독이 올바른지를 결정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텍스트가 둘 다 담고 있으므로, 두 해독 모두 텍스트에 충실하다.

토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18.

같은 책. 같은 주장된 저자. 같은 신:

"남자가 여자와 늙듯 남자와 늙는다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13.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으로 너를 이끌어 들이시고 많은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실 때, 너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라.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고, 자비를 베풀지 말라." 신명기 7:1-2.

"이제 가서 아말렉 사람을 쳐서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라. 그들을 용서하지 말고 남녀노소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죽여라." 사무엘상 15:3.

완전한 기록은 제 8 장에 속한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44.

같은 성전. 같은 전통: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34.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34.

그리고 열아홉 세기의 반유대주의의 씨앗이 된 구절 —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요한복음 8:44 — 예수가 유대인 무리에게 한 말.

그것이 결함이다.

완전한 기록은 제 8 장에 속한다.

완전한 기록은 제 8 장에 속한다.

코란

"종교에 강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코란 2:256.

같은 책. 같은 주장된 계시. 같은 신:

"그들을 발견하는 곳에서 죽여라." 코란 2:191.

"알라를 믿지 않는 자들과 싸우라, 그들이 기꺼이 복종하여 지즈야를 바치고 굴복할 때까지." 코란 9:29.

"신성한 달이 지나면, 다신교도들을 발견하는 곳에서 죽이고, 사로잡고, 포위하고, 모든 매복 장소에서 그들을 기다려라." 코란 9:5.

강제 없음 — 그리고 발견하는 곳에서 죽여라. 같은 책. 같은 신. 해석자가 선택한다.

텍스트는 기타의 초월성과 마누 법전의 위계 모두를 담고 있다. 개혁자는 하나를 읽는다. 억압자는 다른 하나를 읽는다. 둘 다 텍스트에 충실하다.

아키텍처는 여과하지 않는다. 같은 권위 아래 둘 다를 — 초월과 위계, 해방과 감옥을 — 함께 담고 있다.

설계다.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 제 2 장 제 19 절: "죽인다고 생각하는 자도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자도 진실을 모른다. 자아는 죽이지도 않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는다." 영혼의 영원한 본성에 기초한 비폭력의 가르침.

같은 전통. 같은 경전의 권위:

마누 법전 — 마누의 법 — 힌두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법전은, 카스트 제도를 신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확립한다.

그들은 짐승 같았다. 살육은 죄가 아니었다.

달리트 — "불가촉천민" — 은 이 체계보다도 아래에 놓였다. 태어나면서부터 오염된. 공유 우물에서 물을 길는 것이 금지된. 사원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상위 카스트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이 금지된. 그들의 그림자는 오염시키는 것으로 여겨졌다.

수천 년에 걸쳐 수억 명의 인간이, 신적 기원을 주장하는 텍스트에 의해 영구적 종속으로 분류되었다.

텍스트는 기타의 초월과 마누 법전의 위계를 모두 담고 있다. 개혁자는 하나를 읽는다. 억압자는 다른 하나를 읽는다. 두 해독 모두 전통에 충실하다.

설계는 걸러내지 않는다. 둘 다 — 초월과 위계, 해방과 감옥을 — 같은 권위 아래, 같은 선반에, 같은 신적 진리의 주장과 함께 보유하고 있다. 독자가 선택한다. 텍스트는 두 선택 모두를 허용한다.

그것이 결함이다.



사랑의 구절은 실재한다. 자비는 실재한다. 모든 전통에서 수백만 명의 신앙인이 사랑의 구절에 따라 살며 한 줌의 해도 끼치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같은 전통. 같은 경전의 권위:

마하밤사 — 스리랑카의 "대연대기", 상좌부 불교의 기본 텍스트 — 는 기원전 2세기 두타가마니 왕의 타밀 힌두교도 학살을 기록하고 이를 달마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행위로 틀짓는다. 왕이 살해에 대한 회한을 표했을 때, 승려들은 그를 위로했다 — 죽은 자들은 그릇된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다고.

이것은 모든 전통이 행하는 같은 구조적 움직임이다 — 내집단 신성화, 외집단 비인간화, 폭력에 대한 도덕적 허가.

그것들은 아키텍처에 의해 거기 놓였다 — 인간의 세기에 인간의 한계를 가진 인간 행위자들이 수행한, 주장된 신의 신호에 대한 인간의 기록 과정에 의해.

2017년 미얀마에서, 불교 승려 아신 위라투 — 스스로를 "버마의 빈 라덴"이라 칭한 — 가 경전의 권위를 사용하여 로힝야 무슬림에 대한 폭력을 선동했다. 승려들이 팜플렛을 배포했다. 승려들이 민족 청소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다.

어떤 종교도 면제되지 않는다. 설계는 그것들 모두에 걸쳐 작동한다.

모든 종교의 모든 개혁 운동은 사랑의 구절을 읽고 폭력의 구절을 무시하려 했다. 모든 근본주의 운동은 폭력의 구절을 읽고 사랑의 구절을 무시하려 했다.

사랑의 구절은 실재한다. 자비는 실재한다. 모든 전통의 수백만 종교인이 사랑의 구절에 따라 살며 폭력에 손대지 않는다. 이 장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 장이 말하는 것은 — 설계가 사랑과 폭력 모두를 같은 페이지에, 같은 권위 아래, 같은 주장된 신적 기원과 함께 놓았다는 것이다. 모든 전통에서. 예외 없이.

이 장이 말하는 것은 — 설계가 사랑과 폭력 모두를 같은 페이지에, 같은 권위 아래, 같은 주장된 신적 기원과 함께 놓았다는 것이다. 모든 전통에서. 예외 없이.

이 장이 말하는 것은 — 설계가 사랑과 폭력 모두를 같은 페이지에, 같은 권위 아래, 같은 주장된 신적 기원과 함께 놓았다는 것이다. 모든 전통에서. 예외 없이.

다음 장이 그 손을 묘사한다.

제 7 장

폭발물은 텍스트 속에 있다. 항상 텍스트 속에 있었다.

폭발물은 텍스트 속에 있다. 항상 텍스트 속에 있었다.

그것들은 설계에 의해 거기 놓였다 — 주장된 신적 신호의 인간에 의한 필사 과정에 의해, 인간의 증오를 지닌 인간의 손에 의해 수세기에 걸쳐 수행되고, 그것을 제거할 구조적 메커니즘이 없는 제도에 의해 보존되었다.

그것을 제거하려면 텍스트가 인간의 산물임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텍스트가 인간의 산물임을 인정하면, 텍스트가 신적이라는 데 의존하는 비계의 권위가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제거하려면 텍스트가 인간의 산물임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텍스트가 인간의 산물임을 인정하면, 텍스트가 신적이라는 데 의존하는 비계의 권위가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제거하려면 텍스트가 인간의 산물임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텍스트가 인간의 산물임을 인정하면, 텍스트가 신적이라는 데 의존하는 비계의 권위가 무너질 것이다.

비계는 칼날을 제거할 수 없다. 칼날을 제거하면 비계가 죽기 때문이다.

이론이 아니다. 역사다.



작동 1: 정체성 융합

텍스트가 둘 다 담고 있으므로, 두 운동 모두 텍스트에 충실하다.

온건파와 근본주의자 사이의 논쟁은 누가 올바르게 읽고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아니다. 둘 다 올바르게 읽고 있다.

텍스트는 칼날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서랍 속의 칼날은 휴면 상태다. 무언가가 그것을 집어야 한다. 무언가가 그것을 휘둘러야 한다.

다음 장은 그 손을 서술한다.

제 7 장 *메커니즘* 다섯 단계는 설계의 불안정성을 서술한다.

이 장은 메커니즘 — 비계가 몸의 안과 밖을 분류하는 습관을 문명적 폭력으로 변환하는 운용 과정 — 을 서술한다.

분류는 생물학적이다. 모든 인간의 몸이 선을 긋는다 — 안쪽, 바깥쪽. 자아, 타자. 그 습관은 모든 비계에 수십만 년 앞선다. 그 습관은 비계의 발명이 아니다.

타자는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다른 것이 된다 — 신의 눈에 다르고, 근본까지 다른.

다음은 일곱 가지 작동이다. 각각 관찰 가능하다. 각각 기록되어 있다. 각각 모든 주요 종교에 존재한다. 각각 여기서 특정한, 이름 있는 사건으로 실증된다.

비계는 사람이 포기할 수 없는 것 — 자신의 정체성 감각 — 과 자신을 융합시킴으로써 의문의 여지가 없게 만든다.



작동 1: 정체성 융합

비계는 종교적 정체성을 개인적 정체성과 융합한다.

이슬람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무슬림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다.

정체성은 모든 것을 소비한다. 다른 모든 정체성 — 국적, 직업, 가족, 인간성 — 을 종속시킨다.

실증: 살만 루시디가 출판했다 —

매사추세츠에 도착한 청교도 정착민들은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있다고 믿었다 — 언덕 위의 도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신성한 — 1988 년에.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그의 죽음을 요구하는 파트와를 발표했다.

소설은 토론하거나, 비평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이 아니라, 모든 무슬림의 자아에 대한 공격으로 취급되었다.

서적이 폭격당했다. 번역가가 칼에 찔렸다. 일본어 번역가 이가라시 히토시가 1991 년에 살해되었다.

소설. 허구의 작품. 존재적 위협으로 취급되었다. 비계가 신앙과 자아를 너무 완벽하게 융합시켜서 이야기가 공격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정체성이 융합되면, 비판은 공격이 된다. 의문은 신성모독이 된다.

그것은 그것의 결과였다.

작동 2: 내집단 신성화

선택받은 백성. 움마 — 세계적 무슬림 가족. 그리스도의 몸. 소속은 계약이 아니다. 당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장이다.

내집단 구성원은 단순히 소속되는 것이 아니다. 소속되어지는 것이다 — 신에 의해 주장되고, 신에 의해 표식되고, 궁극의 권위의 눈에 특별한.

실증: 명백한 운명의 교리. 대륙을 가로질러 확장하도록 신에 의해 선택된 기독교 국가로서의 미국.

이 어구는 1845년 저널리스트 존 오설리번을 통해 공적 담론에 들어왔지만, 신학은 그보다 2세기 앞섰다.

은총의 증거로 세계에 보이는 — 을 세우고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결코 떠나지 않았다. 국가의 건국 신화가 되었다 — 신의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미국. 신성화된 민족. 정해진 사명.

북미의 원주민은 단순히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언약 밖에 있었다. 그들의 땅은 단순히 원해진 것이 아니다. 약속된 것이었다 — 이스라엘인에게 가나안을 약속한 같은 신에 의해.

신학은 빼앗는 것을 절도가 아니라 순종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내집단 신성화는 영토 확장을 신성한 사명으로 전환했다.

그것의 결과였다.

작동 3: 외집단 표식

비계는 외집단을 구조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표식한다.

이교도. 카피르. 이방인. 젠타일. 이단. 배교자. 불가촉천민. 이 용어들은 의견의 차이를 기술하지 않는다. 지위의 차이를 기술한다 — 궁극의 권위와의 열등한 관계.

외집단은 단순히 틀린 것이 아니다. 신 자신이 선언한 방식으로 틀렸다. 표식은 사회적이지 않다. 표식은 우주적이다.

실증: 카스트 제도와 달리트.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영구적으로 오염된 것으로 표식되었다. 그들의 그림자가 오염시키는. 그들의 접촉이 오염시키는. 그들의 존재가 오염시키는.

2014 년, 인도 타밀나두 주에서, 일라바라산이라는 달리트 소년이 카스트 간 결혼이 그의 마을 전체를 파괴한 폭도 폭력을 촉발한 후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인도 헌법이 카스트 차별을 금지한 지 52 년이 지난 때였다.

법은 바뀌었다. 표식은 바뀌지 않았다. 표식이 법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주적인 것이었다.

텍스트 속에 있었다.

설계에 의해 신성화되었다.

—

작동 4: 도덕적 허가

비계는 내집단 내에서는 금지될 외집단에 대한 행동에 도덕적 허가를 제공한다. 도덕의 경계와 집단의 경계가 융합된다.

외집단에 대한 폭력은 윤리 체계의 위반이 아니다. 그것의 적용이다.

비계는 그 사람의 도덕 감각을 극복할 필요가 없다. 비계는 그것을 방향 전환시킨다.

신을 위해 죽이는 사람은 자신이 선을 행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메커니즘의 힘이다. 도덕을 억압하지 않는다. 탈취한다.

실증: 바루흐 골드스타인은 미국-이스라엘 이중 국적의 의사로, 1994 년 2 월 25 일 헤브론의 족장들의 동굴에 들어가 라마단 기도 중인 무슬림 예배자들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 그는 29 명을 살해하고 125 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생존자들에 의해 맞아 죽었다.

골드스타인은 의사였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다. 생명을 지키는 데 직업적 삶을 바쳤다. 비계는 그가 지닌 모든 직업적, 인간적 본능을 무시할 수 있는 도덕적 허가를 제공했다.

그의 무덤은 순례지가 되었다.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 대량 학살자의 무덤에 도덕적 순수함의 언어가 새겨진 것이다.

비계는 도덕을 억압하지 않는다.

비계는 그것을 탈취한다.



작동 5: 내세의 지렛대

비계는 복종에 대한 보상과 이탈에 대한 벌을 약속한다 — 약속을 검증할 수 있는 이 삶이 아니라, 검증할 수 없는 내세에서.

지렛대는 무한하고 검증 불가능하다. 결코 확인할 수 없는 무한한 인센티브는 어떤 행동이든 동기 부여할 수 있다. 어떤 행동이든.

실증: 이란-이라크 전쟁, 1980-1988.

이란 정권은 아이들에게 플라스틱 열쇠를 나누어 주었다 — 물리적이고, 만질 수 있는, 플라스틱 열쇠 — 그리고 그 열쇠가 천국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진격하는 병사들의 길을 닦기 위해 아이들을 지뢰밭을 가로질러 걸어가게 보냈다.

아이들은 머리띠를 받았다. 머리띠에는 ‘신의 전사’라고 적혀 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겨우 열두 살이었다.

아이들은 머리띠를 받았다. 머리띠에는 ‘신의 전사’라고 적혀 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겨우 열두 살이었다.

아이들은 그들이 신뢰하는 모든 어른 — 어머니, 선생님, 물라 — 이 저편에서 기다리는 것이 이곳에 남겨두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뢰밭으로 걸어갔다. 어머니들은 자신들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냈다.

이것은 관련된 사람들의 실패가 아니다. 어머니들은 괴물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어리석지 않았다. 그들은 건축물이 제공한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무한한 보상 — 영원한 천국 — 대가로 유한한 행위 — 앞으로 걸어가기. 그 수학은 압도적이다. 어떤 세속적 비용-편익 계산도 영원과 경쟁할 수 없다.

그것이 설계가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작동 6: 인식론적 폐쇄 — 체계가 교정에 대해 스스로를 봉인한다

비계가 루프를 닫는다. 의심은 죄다. 의문은 믿음의 부족이다. 비계에 불리한 증거는 신으로부터의 시험이다.

비계가 루프를 닫는다. 의심은 죄다. 의문은 믿음의 부족이다. 비계에 불리한 증거는 신으로부터의 시험이다. 설계는 교정을 위반으로 정의함으로써 교정에 대해 스스로를 면역시킨다.

의심을 죄로 취급하는 체계는 자신이 틀렸다는 증거를 처리할 수 없다.

자신이 틀렸다는 증거를 처리할 수 없는 체계는 업데이트할 수 없다.

업데이트할 수 없는 체계는 경직될 수만 있다.

업데이트할 수 없는 체계는 경직될 수만 있다.

실증: 조르다노 브루노, 도미니크회 수사, 철학자, 수학자.

그는 별들이 자체 행성을 가진 먼 태양이라고 제안했다. 무한한 우주를 제안했다. 지구가 창조적 중심이 아니라고 제안했다.

그 관행은 수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재갈이 세부사항이다. 비계는 단순히 그를 죽인 것이 아니다. 비계는 먼저 그를 침묵시켰다. 그의 말이 군중에 도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비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말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보다 비계에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재갈이 세부사항이다. 비계는 단순히 그를 죽인 것이 아니다. 비계는 먼저 그를 침묵시켰다. 그의 말이 군중에 도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비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말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보다 비계에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재같은 물리적으로 구현된 작동 6 이다 — 탐구자를 파괴하고 탐구를 동시에 침묵시킴으로써 정직한 탐구에 대해 스스로를 봉인하는 설계.



작동 7: 가부장적 설계

텍스트는 남성에게 의해 쓰이고, 남성에게 의해 필사되고, 남성에게 의해 해석되었다 — 남성이 제도적 권력을 가진 사회에서.

이론이 아니다. 추상이 아니다.

역사. 몸.

일곱 가지 작동. 정체성 융합 — 비계와 자아의 융합. 내집단 성화 — 선민, 움마, 그리스도의 몸. 외집단 표식 — 불신자, 카피르, 이교도, 이단자. 도덕적 면허 — 폭력을 복종으로 재정의. 내세의 지렛대 — 무한한 보상, 무한한 처벌, 검증 불가. 봉인된 회로 — 의심은 죄. 가부장적 아키텍처 — 남성 권위의 신성한 인가.

일곱 개의 톱니바퀴. 모두 맞물려. 모두 회전.

여성은 결혼 의상을 입혀졌다. 남편의 시신 옆 장작더미 위에 놓였다. 불이 붙여졌다.

제 8 장

기록

불탄 여성은 여신으로 숭배되었다. 그 장소에 사원이 세워졌다. 소신은 벌이 아니었다. 명예였다.

그것이 작동 7 을 만드는 것이다 — 비계는 단순히 여성의 파괴를 허용한 것이 아니다. 비계는 파괴를 신성하게 만들었다. 여성의 가치는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도출되어서, 남편이 죽으면 그녀의 계속된 존재는 당혹이었다. 그녀의 죽음이 그녀의 최고 성취였다.

이 관행은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영국 식민 행정부가 1829 년에 금지했다. 힌두교 개혁자들은 그 이전 수십 년 동안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사티는 인도의 일부에서 20 세기에도 존속했다. 1987 년 — 1987 년 — 룽 칸와르라는 18 세 여성이 라자스탄에서 남편의 장작더미 위에서 산 채로 불태워졌다. 수천 명이 참석했다. 환호하는 사람도 있었다.

제 8 장에 서술된 막달레나 세탁소는 다른 전통에서의 같은 작동이다. 완전한 기록은 거기에 속한다.

작동 7 은 단순히 여성을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아이들을 종속시킨다. 몸 자체를 종속시킨다.

고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불교에 존재한다 — 다른 형태로, 다른 강도로, 다른 시대에, 그러나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여기서 이름 있는 사람들, 이름 있는 장소들, 이름 있는 낱말로 실증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던져졌다. 네로의 정원에서 인간 햇불로 산 채로 불태워졌다 — 그들의 몸은 역청에 적셔지고 불 붙여져 황제의 만찬을 비쳤다.

메커니즘은 단순했다: 외집단 표식. 도덕적 면허.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모품이었다.

비계가 몸의 분류 습관을 문명적 폭력으로 변환하는 메커니즘.

일곱 개의 톱니바퀴. 모두 맞물려 있다. 모두 돌고 있다.

모두 같은 출력을 낳는다 — 땅 위의 몸.

서기 415 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독교 폭도가 철학자 히파티아를 마차에서 끌어냈다.

다음은 설계 A가 폭력으로 붕괴한 역사적 기록이다.

추정치는 학술 자료에서 도출되었다. 추정치가 갈리는 경우, 범위가 제시된다. 귀속이 논쟁되는 경우, 논쟁이 기재된다.

이 장은 종교가 여기 나열된 모든 분쟁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종교가 폭력이 조직되는 선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 누가 안이고 누가 밖인지,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를 결정한 분류 메커니즘을.

아키텍처가 손을 바꿨다.

이 장의 목소리는 논증이 아니다. 산술이다. 숫자가 말한다.

—

고대

3세기 동안 로마 제국은 기독교도를 박해했다. 숫자는 논쟁 중이다. 추정 사망자는 1만에서 10만에 이른다.

메커니즘은 단순했다 — 외집단 표식. 도덕적 허가. 기독교도는 달랐다. 따라서 기독교도는 일회용이었다.

그리고 비계가 손을 바꾸었다.

서기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했다. 한 세대 내에 — 한 평생 내에 — 박해받던 자가 박해하는 자가 되었다.

서기 415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독교 폭도가 철학자 히파티아를 마차에서 끌어냈다.

히파티아는 수학자였다. 천문학자. 교사. 고대 도서관 — 7세기 동안 인류의 지식을 보존해온 기관 — 의 마지막 위대한 지성이었다.

폭도는 그녀를 벌거벗겼다. 기왓장과 굴 껍데기로 산 채로 가죽을 벗겼다. 시신을 불태웠다.

그녀가 믿는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그녀가 상징하는 것 때문에 죽었다 — 비계 밖에서 작동하는 정신.

메커니즘은 동일했다. 정체성 융합. 내집단 신성화. 외집단 표식. 도덕적 허가.

설계는 바뀌지 않았다.



이슬람 정복

제 1 차 십자군은 1099년 6월 7일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3년의 여정과 수천 킬로미터를 거친 후. 십자군은 옷에 십자가를 꿰맸다. 그리스도를 위해 성도를 탈환하겠다고 맹세했다.

무함마드 사후 1세기 내에 이슬람 제국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서쪽 스페인, 북아프리카, 페르시아, 동쪽 중앙아시아까지 확장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영토 확장 중 하나였다.

무함마드 사후 1세기 내에 이슬람 제국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서쪽 스페인, 북아프리카, 페르시아, 동쪽 중앙아시아까지 확장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영토 확장 중 하나였다.

확장은 순수하게 종교적이지 않았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이기도 했다. 제국은 여러 이유로 확장한다. 그러나 분류의 선 — 누가 안이고 누가 밖인지, 누가 지배하고 누가 봉사하는지를 결정한 선 — 은 비계의 선이었다.

확장은 순수하게 종교적이지 않았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이기도 했다. 제국은 여러 이유로 확장한다. 그러나 분류의 선 — 누가 안이고 누가 밖인지, 누가 지배하고 누가 봉사하는지를 결정한 선 — 은 비계의 선이었다.

딤미 제도는 그 선의 행정적 표현이었다. 비무슬림은 무슬림 통치하에 살도록 허용되었다. 평등하게 살도록 허용되지는 않았다.

딤미 제도는 그 선의 행정적 표현이었다. 비무슬림은 무슬림 통치하에 살도록 허용되었다. 평등하게 살도록 허용되지는 않았다.

지즈야 — 비무슬림에게만 부과되는 특별세 — 를 납부해야 했다. 무기 소지가 금지되었다. 새 예배당 건축이 금지되었다. 무슬림 앞에서 말을 타는 것이 금지되었다. 법정에서 무슬림에 불리한 증언이 금지되었다.

병사들은 칼을 숨기지 않았다.

딤미 제도는 학살이 아니었다. 설계였다.

종교적 위계를 국가의 행정 구조에 부호화하고 수세기 동안 유지했다. 종속은 영구적이었다. 부모에서 자녀로 전해졌다. 신적으로 인가되었다.

아키텍처는 구별하지 않는다.

딤미 가정에 태어난 아이는 종속자로 태어났다. 아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다. 아이가 무엇을 믿는가 — 더 정확히는, 무엇을 믿지 않는가 — 때문이다.

딤미 가정에 태어난 아이는 종속자로 태어났다. 아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다. 아이가 무엇을 믿는가 — 더 정확히는, 무엇을 믿지 않는가 — 때문이다. 120년간의 지속적 확장 동안의 추정 사망자: 수십만에서 수백만.

120년간의 지속적 확장 동안의 추정 사망자: 수십만에서 수백만.

비계가 지도를 제공했다.

비계가 지도를 제공했다.

칼이 지도를 따랐다.

칼이 지도를 따랐다.

십자군

뒤따른 것은 중세 역사상 최악의 학살 중 하나였다.

십자군은 도시의 거의 모든 무슬림과 유대인 주민을 죽였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세 종교가 거룩하다 부른 도시에 살았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 동시대 연대기는 피가 거리를 흘렀다고 서술한다. 연대기 작가 아길레르의 레몽은 사람들이 말의 무릎까지 차는 피 속으로 성전산을 말타고 갔다고 썼다.

그들이 한 것 때문이 아니라 어떤 건물에서 기도했는가 때문에 죽었다.

성지로 가는 도중, 십자군은 1096년 라인란트 학살을 자행했다 — 독일 도시 슈파이어, 보름스, 마인츠, 쾰른의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조직적 학살.

유대인에게 선택이 주어졌다 —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죽거나. 죽음을 선택한 자 — 자신의 비계를 버리기보다 죽기를 선택한 자 — 는 시나고그에서 죽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처형을 위해 세속 권력에 넘겨졌다, 교회가 직접 피를 흘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관료적 속임수. 아키텍처 자체 도덕률의 절차적 허점.

가족은 아이들이 개종당하느니 직접 죽었다.

비계는 죽이는 자와 죽는 자 모두를 낳았다.

알비 십자군, 1209-1229: 무슬림에 대해서가 아니다. 기독교도에 대해서.

남프랑스의 카타리파는 같은 신앙의 다른 해석을 가졌다. 교황이 그들을 이단으로 선언했다. 1209년 7월 22일 베지에 포위전에서, 교황 특사

아르노 아모리가 도시의 카타리파와 충실한 가톨릭 신자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물었다.

도시 전체가 학살당했다. 남자, 여자, 아이, 가톨릭과 카타리파 함께.

베지에에서의 추정 사망자: 하루에 7천에서 2만. 전체 알비 십자군의 추정 사망자: 20만에서 100만.

9차례의 주요 십자군. 합산 추정 사망자: 1백만에서 3백만.

—

종교재판과 마녀재판

스페인 종교재판: 역사가 헨리 카멘, 구스타프 헤닝센, 하이메 콘트레라스의 문서 연구에 기반하여, 350년에 걸쳐 약 3천에서 5천 명이 처형되었다. 스페인 종교재판: 역사가 헨리 카멘, 구스타프 헤닝센, 하이메 콘트레라스의 문서 연구에 기반하여, 350년에 걸쳐 약 3천에서 5천 명이 처형되었다.

이 숫자는 대중적 신화보다 훨씬 낮다. 이 장이 증거 기반 수치를 사용하는 것은 정확히 증거 기반 수치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같은 신의 잘못된 해석을 믿었기 때문에 산 채로 불태워진 3천 명.

3천 명의 인간 — 같은 건물의 창 — 이 말뚝에 묶이고, 장작으로 둘러싸이고,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태워졌다. 사제가 기도하는 동안. 관리가 가죽 장정 장부에 정성스러운 필체로 절차를 기록하는 동안.

메커니즘은 공식적이고 절차적이었다. 피고인이 심문되었다. 자백이 추출되었다 — 종종 교황의 직접적 칙령에 의해 허가된 고문을 통해. 방법에는 고문대, 스트라파도 — 뒤로 묶인 손목으로 매달리는 — 그리고 물고문이 포함되었다. 고문은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었다. 기록되었다. 관료적이었다.

메커니즘은 공식적이고 절차적이었다. 피고인이 심문되었다. 자백이 추출되었다 — 종종 교황의 직접적 칙령에 의해 허가된 고문을 통해. 방법에는 고문대, 스트라파도 — 뒤로 묶인 손목으로 매달리는 — 그리고 물고문이 포함되었다. 고문은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었다. 기록되었다. 관료적이었다.

유죄 판결자는 처형을 위해 세속 당국에 넘겨졌다. 교회가 직접 피를 흘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람을 산 채로 불태우는 것을 제도에 허용한 관료적 구별.

설계가 자신의 도덕률에서 절차적 허점을 찾고 있다. 설계가 설계대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다.

유럽 마녀재판, 1450-1750: 4만에서 6만 명 처형. 대다수가 여성.

이를 가능하게 한 신학적 혁신은 한 권의 책이었다 —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 "마녀의 망치" — 1487년 두 명의 도미니크회 종교재판관에 의해 출판. 이 책은 세 가지를 확립했다 — 마법은 실재하고, 이단이며, 사형에 해당한다.

이를 가능하게 한 신학적 혁신은 한 권의 책이었다 —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 "마녀의 망치" — 1487년 두 명의 도미니크회 종교재판관에 의해 출판. 이 책은 세 가지를 확립했다 — 마법은 실재하고, 이단이며, 사형에 해당한다.

한 권의 책 — 남성에 의해 쓰이고, 제도에 의해 승인되고, 유럽 전역에 배포된 — 이 새로운 범주의 외집단을 창출하고 그 학살을 인가했다.

1612년, 랭커셔 펜들에서, 엘리슨 디바이스라는 여성 — 젊고, 가난하고, 시력이 약한 — 이 다투었던 행상인이 뇌졸중을 일으킨 후 마법 혐의로 고발되었다. 심문 중 자백했다. 자백은 어머니, 할머니, 이웃을 연루시켰다.

열 명이 랭커스터 성에서 교수형당했다. 엘리슨은 스무 살이었다. 할머니 뎀다이크는 여든이고 장님이었다. 재판 전에 옥사했다.

같은 그리스도를 경배했다.

같은 아버지에게 기도했다.

수만 명의 여성 — 치유사, 산파, 추방자, 정신병자, 거추장스러운 자, 노인, 과부, 이상한 자 — 이 자백할 때까지 고문당하고 불태워졌다.

독일 농민 전쟁, 1524-1525: 10만 사망. 농민은 종교개혁의 영적 평등 약속에 고무되어 봉건적 억압에 봉기했다. 그들은

식민지 비계

성 바르톨로뮤의 날 학살, 1572년 8월 24일: 가톨릭 대 위그노.

교황 — 그레고리오 13세 — 가 로마에서 소식을 받았다. 테 데움 — 신에게 감사하는 찬송 — 을 축하로 부르라 명했다. 학살 그림을 바티칸을 위해 의뢰했다.

메달. 학살을 기념하기 위해. 추정 사망자: 5천에서 3만. 30년 동안 군대가 독일을 횡단하며 행군하고 역행군했다. 마을을 불태웠다. 민간인을 학살했다.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도록 밭에 소금을 뿌렸다. 기근이 제 2의 군대처럼 군대를 따랐다.

독일의 인구가 30퍼센트 줄었다. 일부 지역은 주민의 3분의 2를 잃었다. 추정 사망자: 4백만에서 8백만. 5천 명의 마을이 주요 정착지였던 시대에.

이것들은 주변적 문서가 아니었다. 교황 칙령이었다 — 기독교 세계가 부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태의 제도적 권위.

비계의 정복, 노예화, 문화적 섬멸에 대한 명시적, 서면, 제도적 승인.

식민지의 비계

1452년, 교황 니콜라스 5세는 공식 칙령을 발표했다 — 기독교 세계 최고 권위자의 직접적 명령 — 포르투갈 왕에게 비기독교인이 거주하는 모든 땅을 침략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포획하며, 그 영토를 포르투갈 왕실의 소유로 선언할 권리를 부여했다.

칙령은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기독교 군주들에게 비기독교인 민족을 “침략하고, 수색하고, 포획하고, 정복하고, 복속시킬” 것과 “그들의 인격을 영구적 노예 상태로 환원시킬” 것을 허가했다.

1493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달한 뒤, 교황 알렉산더 6세는 비기독교 세계 전체를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 분할하는 두 번째 칙령을 발표했다. 자신이 넘겨주는 땅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로마의 한 남자가 지도에 선을 그었다. 선의 서쪽은 스페인 것이었다. 동쪽은 포르투갈 것이었다.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은 상의 대상이 아니었다.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 비계의 눈에 그들은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다 —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변방의 문서가 아니었다. 교황 칙령이었다 — 기독교 세계가 지닌 가장 높은 형태의 제도적 권위. 이 칙령은 수 세기 동안 식민 정부들에 의해 인용되었다. 법정에서 법적 선례로 사용되었다. 가톨릭 교회에 의해 2023년까지 철회되지 않았다.

정복, 노예화, 문화적 말살을 위한 비계의 명시적이고, 서면으로 작성된, 제도적 허가 — 지상에서 하느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서명하고, 봉인하고, 전달한 것.

유럽 열강이 확장한 곳마다 패턴은 동일했다.

유럽 열강이 확장한 곳마다 패턴은 동일했다.

아메리카에서 스페인 선교사들은 아즈텍과 잉카 민족 사이에 성경과 십자가와 약속을 가지고 도착했다: 우리의 신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들은 현지 언어를 배웠다. 교회를 지었다.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많은 경우 진심이었다. 그들은 영혼을 저주에서 구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선교사 뒤에는 군인이 왔다. 군인 뒤에는 총독이 왔다. 총독 뒤에는 광산과 농장과 노예선이 왔다. 선교사가 관계를 열었다. 제국이 가치를 추출했다.

그러나 선교사 뒤에는 군인이 왔다. 군인 뒤에는 총독이 왔다. 총독 뒤에는 광산과 농장과 노예선이 왔다. 선교사가 관계를 열었다. 제국이 가치를 추출했다.

추정 사망자: 확인된 4,000-6,000 명, 조사 진행 중.

그들은 선의를 가졌다. 많은 이들이 진심으로 선의를 가졌다. 그러나 그들은 뒤에 올 것 — 식민 행정, 자원 추출, 아프리카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런던과 파리의 남 자들에 의한 대륙 전체의 국경 재편 — 을 위한 문화적 기반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선의를 가졌다. 많은 이들이 진심으로 선의를 가졌다. 그러나 그들은 뒤에 올 것 — 식민 행정, 자원 추출, 아프리카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런던과 파리의 남 자들에 의한 대륙 전체의 국경 재편 — 을 위한 문화적 기반을 정리하고 있었다.

태평양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오세아니아 섬들에서 — 같은 순서였다. 성경이 먼저 도착했다. 깃발이 뒤따랐다. 총이 깃발을 뒤따랐다.

그 순서는 우연이 아니었다. 비계가 문을 열었다. 식민 권력이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수 세기 동안 닫히지 않았다.

그 순서는 우연이 아니었다. 비계가 문을 열었다. 식민 권력이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수 세기 동안 닫히지 않았다.

—

캐나다의 기숙학교는 1880년대부터 1996년까지 운영되었다. 15만 명 이상의 원주민 아동이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었다 — 때로는 한밤중에, 때로는 물리적으로 제압당한 어머니들 곁에서 정부 요원에 의해 끌려갔다 — 그리고 집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교회 운영 시설에 배치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자신의 문화를 실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도착하면 머리카락이 잘렸다. 이름은 영어 이름으로 교체되었다. 카니카니흐 크로 도착한 아이는 ‘토마스’로 떠났다.

모국어를 말한 아이는 맞았다. 자기 방식으로 기도한 아이는 벌을 받았다. 부모를 그리워하며 운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명시된 정책은 문화적 말살이었다. 시스템의 설계자들이 사용한 문구는: “아이 안의 인디언을 죽여라.” 개혁이 아니다. 교육이 아니다. 말살이다.

목표는 한 민족의 정체성을 지우고 비계의 정체성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 아이들이 결코 자신이 누구였는지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전향시키는 것.

많은 아이들이 단순히 사라졌다. 가족들은 아이들이 도망쳤다는 말을 들었다.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2021년, 지반 투과 레이더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캠퍼프스 인디언 기숙학교 터에서 215기의 표시 없는 무덤을 발견했다.

2017년, 골웨이 주 투암의 구 가톨릭 미혼모 시설 부지에서, 폐쇄된 정화조에서 약 800명의 어린이 유골이 발견되었다.

숫자는 계속 올라갔다. 각 숫자는 한 아이였다. 각 아이에게는 빼앗긴 이름과 부여된 이름이 있었고, 어느 쪽 이름도 무덤에 적히지 않았다.

아이들. 영혼을 구하고 있다고 주장한 기관들의 부지에 표시 없는 무덤에 묻힌 아이들.



아일랜드의 막달렌 세탁소는 1765년부터 1996년까지 운영되었다. 추정 3만 명의 여성이 전국의 가톨릭 운영 시설에 감금되었다.

논거는 단순했다.

그들은 새 이름을 받았다. 이전 정체성은 지워졌다. 상업 세탁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 시트를 세탁하고, 리넨을 다림질하며 — 무급으로, 몇 년간, 때로는 수십 년간, 때로는 평생.

세탁소는 사업체로 운영되었다. 호텔, 병원, 정부 기관으로부터 계약을 받았다. 여성들이 노동력이었다. 그들은 급여를 받지 못했다. 떠날 자유도 없었다.

이것은 주변적 해석이 아니었다. 주류 신학이었다.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일상이었다. 저항하는 여성은 처벌받았다. 탈출을 시도한 여성은 경찰에 의해 돌려보내졌다. 국가와 비계는 단일 시스템으로 작동했다 — 국가가 여성을 인도하고, 비계가 그들을 가두고, 양쪽 모두 외면했다.

마지막 막달렌 세탁소는 1996년에 문을 닫았다.

2017년, 골웨이주 투암에 있는 미혼모를 위한 가톨릭 시설 터에서 약 800명 아동의 유해가 정화조에서 발견되었다. 아이들. 하수 시설 안에. 신생아부터 세 살까지.

비계의 건축 — 여성은 타락한 존재, 아이는 수치스러운 존재, 복종이 구원 — 이 영아들을 정화조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역사가 아니다. 이것은 어제다. 살아 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생애 안에.

대서양 노예 무역은 함의 저주, 창세기 9:20-27 을 통해 4 세기 동안 종교적으로 정당화되었다.

퀘이커교도 —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내적 빛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소규모 기독교 교파 — 는 노예제를 죄로 규탄한 최초의 조직적 단체 중 하나였다.

창세기에서 노아는 아들 함 — 더 정확히는 함의 아들 가나안 — 을 저주했다. 수 세기에 걸쳐 기독교 학자들은 어떠한 텍스트적 근거도 없이, 어떠한 역사적 증거도 없이, 오직 정당화의 필요에 의해서만 — 함을 아프리카인의 조상으로 규정했다.

창세기에서 노아는 아들 함 — 더 정확히는 함의 아들 가나안 — 을 저주했다. 수 세기에 걸쳐 기독교 학자들은 어떠한 텍스트적 근거도 없이, 어떠한 역사적 증거도 없이, 오직 정당화의 필요에 의해서만 — 함을 아프리카인의 조상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아프리카인은 신에 의해 예종으로 정해졌다.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했다. 그들의 검은 피부는 저주의 표식이었다. 그들의 노예화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은 변방의 해석이 아니었다. 이것은 주류 신학이었다.

주요 대학의 교수들이 이를 가르쳤다. 주요 교회의 주교들이 이를 설교했다. 교리문답서에, 설교에, 법적 논증에, 의회 토론에 등장했다.

4 백 년 동안, 비계는 수백만 인간이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도덕적 틀을 제공했다.

그들은 포획되고, 사슬에 묶이고, 대양을 건너 수송되었다 — 그 여정 자체가 150 만에서 200 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잔인한 조건에서 — 그리고 팔리고, 낙인찍히고, 과로로 죽고, 버려질 수 있었다.

그들은 포획되고, 사슬에 묶이고, 대양을 건너 수송되었다 — 그 여정 자체가 150 만에서 200 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잔인한 조건에서 — 그리고 팔리고, 낙인찍히고, 과로로 죽고, 버려질 수 있었다.

노예 무역 시스템의 총 사망자 수: 4 세기에 걸쳐 1,000 만-1,500 만 명.

비계가 배를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비계는 배를 만드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이 단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 하나님이 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예제를 끝내기 위한 운동 역시 종교적으로 추동되었다.

퀘이커교 — 모든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내면의 빛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소규모 기독교 교파 — 는 노예제를 죄라고 최초로 선언한 이들 가운데 하나였다. 청원을 조직하고, 도망 노예를 보호하고, 참여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무역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노예 상인과 같은 성경을 읽고 완전히 다른 것을 보았다.

윌리엄 윌버포스, 독실한 복음주의 기독교인이자 영국 의회 의원은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 20 년간 운동했다. 20 년간의 연설, 법안, 패배, 그리고 재기.

윌리엄 윌버포스, 독실한 복음주의 기독교인이자 영국 의회 의원은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 20 년간 운동했다. 20 년간의 연설, 법안, 패배, 그리고 재기.

그는 농장주들과 같은 성경을 읽었다. 같은 하느님을 예배했다. 같은 성구를 사용했다 — 그리고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 — 노예화된 사람들 자신이 비밀리에, 숲에서, 밤에, 처벌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세운 교회 — 는 저항의 영적 중추가 되었다.

노예화된 사람들은 자신의 족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종교를 가져와 해방의 언어로 변환시켰다. 그들이 부른 노래 — 스피리추얼이라 불린 — 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암호이자, 지도이자, 체계가 부정된 인간성의 선언이었다.

이것은 구조적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확인시킨다.

같은 건축, 같은 텍스트, 같은 하느님이 노예제의 정당화와 그에 대한 반론을 모두 생산했다.

노예 상인은 함의 저주를 읽고 신의 허가를 보았다.

폐지론자는 같은 성경을 읽고 신의 금지를 보았다.

폐지론자는 같은 성경을 읽고 신의 금지를 보았다.

두 해석 모두 텍스트에 충실했다. 왜냐하면 텍스트가 둘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건축 A가 생산하는 것이다. 그것이 건축 A가 언제나 생산할 것이다.

아르메니아 학살, 1915-1923: 100-150 만 명 사망.

추정 사망자: 2,000 만-3,000 만 명. 절대 수치로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종교 분쟁.

변호론자는 말할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었다. 흥수전은 망상에 빠져 있었다. 성경을 잘못 읽었다. 어떤 진지한 전통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건축은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구조적 검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전통에 호소할 수만 있을 뿐이다 — 그리고 전통은 해석이고, 해석이 결합이다.

공리는 사적 계시로 주장될 수 없다. 오직 검증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새로운 공리를 도출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수학을 보여주고, 킥 스위치를 통과하고, 해체 설명서를 공개해야 한다.

—

아르메니아 학살, 1915-1923: 100 만-150 만 명 사망.

오스만 정부는 아르메니아 인구의 추방을 명령했다. “추방”은 관료적 단어다. 실제로 의미한 것은 거리에 의한 절멸이었다.

오스만 정부는 아르메니아 인구의 추방을 명령했다. “추방”은 관료적 단어다. 실제로 의미한 것은 거리에 의한 절멸이었다.

남자들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자기 마을 외곽에서 집단으로 총살당했다. 여성, 어린이, 노인은 아무 곳에도 닿지 않는 길을 따라 시리아 사막으로 행군하게 되었다.

음식은 제공되지 않았다. 물도 제공되지 않았다. 경비병들은 누구도 멈추지 못하게 했다. 쓰러진 사람은 쓰러진 곳에 버려졌다. 행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빈 사막에 도착하여 죽도록 내버려졌다.

여성들은 계속 걸느니 유프라테스강에 몸을 던졌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강에 던진 후 스스로 뛰어 들었다.

여성들은 계속 걸느니 유프라테스강에 몸을 던졌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강에 던진 후 스스로 뛰어 들었다.

분류 기제는 종교적이고 민족적이었다: 비계의 경계선을 따라 선을 긋는 무슬림 다수 국가 기구에 의해 절멸 대상으로 지정된 기독교 아르메니아인.

홀로코스트, 1933-1945: 유대인 600 만 명 학살.

비계의 기여는 직접적 명령이 아니라 19 세기에 걸친 구조적 준비였다.

비계의 기여는 직접적 명령이 아니라 19 세기에 걸친 구조적 준비였다.

요한복음은 유대인을 악마의 자녀로 규정한다. 교부들은 유대인의 죄에 관한 신학을 정교화했다. 중세의 혈액 비방은 유대인이 기독교 아동을 살해하고 그 피를 의식에 사용한다고 고발했다 — 20 세기까지 살아남을 정도로 끈질긴 거짓말.

1215 년 제 4 차 라테란 공의회는 유대인에게 구별되는 복장을 입도록 요구했다 — 나치가 7 세기 후 노란 별로 부활시킨 요구. 그 유사성은 우연이 아니었다. 나치는 역사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완성하고 있었다.

1543 년 출판된 마르틴 루터의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는 회당을 불태우고, 유대인 재산을 몰수하고, 랍비의 가르침을 금지하고, 유대인을 노예화할 것을 권고했다. 나치는 루터를 인용했다. 루터가 기술한 프로그램은 4 세기 후 나치가 산업적 정밀함으로 실행한 프로그램이다.

비계가 방아쇠를 당긴 것이 아니다. 비계는 1,900 년간 유럽에게 조준경 안의 사람들이 완전한 인간 이하라고 가르쳤다.

19 세기의 설교. 19 세기의 신학. 19 세기의 같은 메시지, 다른 언어로, 다른 세기에, 다른 강단에서, 다른 회중에게, 같은 결론으로 전달되었다: 유대인은 유죄다. 유대인은 타자다. 유대인은 저주받았다.

질문은 무엇을 믿는가였다.

때가 되었을 때, 방아쇠는 스스로 당겨졌다.

1980-2026

모든 방향에 시신. 학살은 대칭적이었다. 증오는 대칭적이었다. 비계는 대칭적이었다.

이 문장이 쓰이는 동안에도 데이터는 축적되고 있다.

이란-이라크 전쟁, 1980-1988: 100 만 명 사망. 이란은 전쟁을 지하드 — 하느님이 명한 성전 — 로 규정했다. 정권은 아이들에게 플라스틱 열쇠를 나눠주고 지뢰밭을 가로질러 걸어가게 보냈다. 그 기제는 7 장에서 서술되었다. 100 만 구의 시신.

제 2 차 수단 내전, 1983-2005: 200 만 명 사망. 하르툼의 무슬림 다수 정부가 기독교와 정령 신앙의 남부에 샤리아법을 강제했다. 남부는 저항했다. 아이들이 납치되었다. 기근이 무기화되었다. 400 만 명이 난민이 되었다. 분류선은 비계의 선이었다: 무슬림 북부, 기독교 남부.

르완다, 1994: 100 일간 80 만 명 사망.

80 퍼센트가 가톨릭 신자인 나라. 후투족과 투치족 모두 같은 비계를 공유했다 — 같은 교회, 같은 교구, 같은 성사.

이 장은 비계가 르완다 학살을 초래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보스니아, 1992-1995: 10 만 명 사망. 1995 년 7 월 스레브레니차에서 유엔은 그 도시를 안전지대로 선언했다. 보스니아 세르비아군은 어쨌든 도착했다. 8,000 명의 무슬림 남성과 소년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들판으로 끌려가 집단으로 총살당했다. 일부는 산 채로 매장되었다. 유럽. 1995 년. 분류는 종교적이었다.

보스니아, 1992-1995: 10 만 명 사망. 1995 년 7 월 스레브레니차에서 유엔은 그 도시를 안전지대로 선언했다. 보스니아 세르비아군은 어쨌든 도착했다. 8,000 명의 무슬림 남성과 소년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들판으로 끌려가 집단으로 총살당했다. 일부는 산 채로 매장되었다. 유럽. 1995 년. 분류는 종교적이었다.

보스니아, 1992-1995: 10 만 명 사망. 1995 년 7 월 스레브레니차에서 유엔은 그 도시를 안전지대로 선언했다. 보스니아 세르비아군은 어쨌든 도착했다. 8,000 명의 무슬림 남성과 소년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들판으로 끌려가 집단으로 총살당했다. 일부는 산 채로 매장되었다. 유럽. 1995 년. 분류는 종교적이었다.

보스니아, 1992-1995: 10 만 명 사망. 1995 년 7 월 스레브레니차에서 유엔은 그 도시를 안전지대로 선언했다. 보스니아 세르비아군은 어쨌든 도착했다. 8,000 명의 무슬림 남성과 소년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들판으로 끌려가 집단으로 총살당했다. 일부는 산 채로 매장되었다. 유럽. 1995 년. 분류는 종교적이었다.

은타라마 교회에서 추정 5,000 명이 건물 내에서 살해되었다. 낭게 교구의 사제 — 아타나세 세롬바 — 는 교회를 불도저로 피난민 위에 허물라고 명령했다.

비계는 일요일에 지붕을 받쳤다. 비계는 월요일에 칼날을 받쳤다.

—

가톨릭 신자 80 퍼센트의 국가. 후투족과 투치족 모두 같은 비계를 공유했다 — 같은 교회, 같은 교구, 같은 성사, 같은 하느님.

인구의 80 퍼센트가 같은 윤리 체계를 공유하고, 같은 교회에 출석하며, 같은 도덕 교육을 받았다 — 그리고 칼이 나왔을 때, 비계는 어떤 구조적 저항도 제공하지 못했다. 없음. 제로.

은타라마 교회에서 추정 5,000 명이 건물 안에서 살해되었다. 낭게 교구의 사제 아타나스 세롬바는 2,000 명의 투치족이 피난해 있는 교회를 불도저로 밀어버리도록 명령했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학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ISIS, 2013-2019.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1996-2021, 그리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 사망자 17 만 명. 무력으로 강제된 종교법. 여성의 교육, 취업, 공적 생활 금지.

탈레반이 2021년 국가를 재장악했을 때, 의사, 교수, 판사였던 여성들은 하룻밤 사이에 직업을 빼앗겼다. 읽기를 배우고 싶었던 소녀들은 읽기를 배우고 싶었다는 이유로 맞았다.

탈레반이 2021년 국가를 재장악했을 때, 의사, 교수, 판사였던 여성들은 하룻밤 사이에 직업을 빼앗겼다. 읽기를 배우고 싶었던 소녀들은 읽기를 배우고 싶었다는 이유로 맞았다.

바미안 석불은 아프가니스탄 중부 절벽 면에 조각된 두 개의 거대 석상으로 —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입상 불상이었다,

1,500년 전에 세워져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였다. 2001년 3월, 탈레반은 비계가 우상이라 선언했기 때문에 이를 폭파했다. 1,500년의 인류 업적이 한 오후에 파괴되었다, 텍스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1,500 년 전에 세워져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였다. 2001 년 3 월, 탈레반은 비계가 우상이라 선언했기 때문에 이를 폭파했다. 1,500 년의 인류 업적이 한 오후에 파괴되었다, 텍스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12 세 이상의 남성과 소년은 여성 및 소녀와 분리되었다. 남성은 들판으로 끌려가 줄지어 총살당했다. 9 세 어린 소녀들이 전투원에게 재산으로 할당되었다. 가격 목록이 배포되었다. 나이 든 여성은 더 싼다. 어린 소녀는 더 비쌌다.

나이지리아: 보코 하람, 2009-현재. 30 만 명 사망. 이름의 뜻은 “서양 교육은 금지”이다. 비계가 지식을 죄로 선언한 것이다. 2014 년 4 월, 치복 기숙사에서 276 명의 여학생이 납치되었다. 일부는 전투원에게 강제 결혼당했다. 일부는 자살 폭탄으로 사용되었다. 100 명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의 부모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진행 중. 같은 신. 같은 땅. 같은 약속이, 같은 비계에 의해 두 다른 민족에게 주어졌다.

미얀마: 로힝야, 2016-현재. 수만 명 살해. 100 만 명 이상 이주. 불교 승려들이 수년간 지반을 준비했다 — 설교에서

로힝야를 비인간으로 선언하고, 팸플릿에서 그들의 추방을 요구했다. 자비의 종교가 민족 청소를 위한 도덕적 틀을 제공했다. 어떤 종교도 예외가 아니다. 없다.

로힝야를 비인간으로 선언하고, 팸플릿에서 그들의 추방을 요구했다. 자비의 종교가 민족 청소를 위한 도덕적 틀을 제공했다. 어떤 종교도 예외가 아니다. 없다.

로힝야를 비인간으로 선언하고, 팸플릿에서 그들의 추방을 요구했다. 자비의 종교가 민족 청소를 위한 도덕적 틀을 제공했다. 어떤 종교도 예외가 아니다. 없다.

가자에서의 후속 군사 작전은 수천 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다. 전체 지역이 평탄화되었다. 병원이 파괴되었다. 가족 전체가 민적부에서 지워졌다 — 모든 구성원이 사망하고, 애도할 사람이 남지 않았다.

1980년 이후만의 보수적 합계: 종교적 정체성이 주요 또는 중요한 단층선이었던 분쟁에서 500-700만 명 사망.

기록된 전체 역사에 걸친 보수적 합계: 중대한 종교적 원인 또는 단층선이 있는 분쟁에 대한 학술적 추정치는 3,000만에서 2억 명 사이이다.

2026년 3월. 이 문장. 지금. 비계는 가동 중이다. 칼날은 텍스트 속에 있다. 피는 땅 위에 있다. 기록은 계속된다.

2026년 3월. 이 문장. 지금. 비계는 가동 중이다. 칼날은 텍스트 속에 있다. 피는 땅 위에 있다. 기록은 계속된다.

달렸다.

습관에 의해 분류되었다. 비계에 의해 표식되었다. 칼날에 의해 달렸다.

비계가 지붕을 받쳤다. 비계가 칼날을 받쳤다. 기록은 모호하지 않다.

—

아이들

1980년 이후만의 보수적 합산: 종교적 정체성이 주요 또는 중요한 분류 기제였던 분쟁에서 500만-700만 명 사망.

기록된 역사 전체의 보수적 합산: 종교적 원인이나 정당화가 유의미한 분쟁에 대한 학술적 추정치는 5,000만에서 2억 이상.

기록된 역사 전체의 보수적 합산: 종교적 원인이나 정당화가 유의미한 분쟁에 대한 학술적 추정치는 5,000만에서 2억 이상.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조차 — 모든 논쟁적 귀속을 제거하고, 모든 모호한 분쟁을 배제하고, 모든 변호론자의 반론을 인정하고, 모든 의심의 이익을 부여하더라도 — 그 수는 수천만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조차 — 모든 논쟁적 귀속을 제거하고, 모든 모호한 분쟁을 배제하고, 모든 변호론자의 반론을 인정하고, 모든 의심의 이익을 부여하더라도 — 그 수는 수천만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수천만 개의 창. 각각이 하나의 관점. 각각이 반복 불가능한 것. 각각이 우주가 특정한 눈을 통해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는 지점.

아이는 침묵시킬 수 있었다. 아이는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었다. 아이는 옮길 수 있었다. 사제는 다른 교구로 전보될 수 있었다 — 아키텍처가 그를 신뢰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는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

보스턴의 버나드 로 추기경은, 그의 대교구가 수십 년간 체계적으로 학대 사제를 재배치했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습관에 의해 분류되었다. 비계에 의해 표식되었다. 칼날에 의해 달렸다.

습관에 의해 분류되었다. 비계에 의해 표식되었다. 칼날에 의해 달렸다.

비계가 지붕을 지탱했다. 비계가 칼날을 쥐고 있었다. 기록은 모호하지 않다.

비계가 지붕을 지탱했다. 비계가 칼날을 쥐고 있었다. 기록은 모호하지 않다.

—

아이들

가톨릭 교회의 성적 학대 위기는 스캔들이 아니다. 스캔들은 사건이다. 이것은 시스템이다.

패턴은 어디서나 동일했다. 사제가 아이를 학대했다. 아이가 보고했다. 기관이 내부적으로 조사했다. 사제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사제는 아무도 모르는 다른 도시의 다른 교구로 전보되었다. 사제가 다시 학대했다. 기관이 다시 전보했다. 순환이 반복되었다. 수십 년간. 모든 대륙에서.

33 만 명의 아이들. 한 나라에서. 하나의 비계 아래.

은폐는 작동 4 와 작동 6 이 함께 작용한 것 — 도덕적 허가와 인식론적 폐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 비계를 보호하는 것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했다.

아이는 침묵시킬 수 있었다. 아이는 신용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 아이는 이동시킬 수 있었다. 사제는 아무도 모르는 새 교구로 전보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제는 다시 학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관은 다시 전보할 수 있었다.

그는 승진했다. 로마에서 권위 있는 직책과 교황 의전에서의 의례적 역할을 부여받았다.

건축이 은폐에 보상했다. 건축이 아이들을 대가로 시스템을 보호한 사람을 승진시켰다.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느니 자기 아이들을 희생하는 시스템은 인식론적 폐쇄의 종말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 시스템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이상 볼 수 없는 지점, 왜냐하면 보면 시스템이 죽기 때문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28.

제 9 장

역증

결과는 계산되지 않았다. 건축이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에 —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진짜 세상은 다른 곳에 있으며, 땅은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그 구절은 아직 텍스트에 있다. 그 틀은 철회되지 않았다.

이 무게를 감당하기 전에, 비계는 마지막 방어를 한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최악은 아니다. 무신론자들이 더 많이 죽었다. 그 방어를 들어보라.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라.

다섯 단계가 동일하게 작동한다. 선언. 기록. 해석. 분기 — 중소 분열, 트로츠키 대 스탈린, 마오주의 대 레닌주의. 붕괴.

일곱 작동이 동일하게 작동한다. 정체성 융합: 너는 프롤레타리아다. 내집단 성화: 노동 계급은 역사의 엔진. 외집단 표식: 부르주아지는 계급의 적. 도덕적 면허: 폭력은 역사적 필연. 봉인된 회로: 이견은 반혁명적.

세속적 이데올로기가 더 많이 죽었다. 스탈린의 숙청: 6 백만-20 백만. 마오의 대약진: 15 백만-55 백만. 폴 포트의 캄보디아: 1.5 백만-2 백만. 20 세기의 무신론 정권은 어떤 개별 종교 분쟁도 왜소하게 만드는 사망자 수를 냈다.

이 반론은 옳다. 그리고 구조적 주장을 증명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설계 A이다. 권위는 신이 아니다. 권위는 사적 유물론이다 — 마르크스가 선언하고, 엥겔스가 기록하고, 레닌이 해석하고, 스탈린이 재해석하고, 마오가 재해석한 현실에 대한 주장된 구조적 진리.

다섯 단계가 동일하게 작동한다. 선언. 기록. 해석. 분기 — 중소 분열, 스탈린주의에 대한 트로츠키주의. 폭력으로의 붕괴.

일곱 작동이 동일하게 작동한다. 정체성 융합: 당신은 프롤레타리아트이다. 내집단 신성화: 선택된 계급으로서의 노동자 계급. 외집단 표식: 부르주아지, 쿨락, 반혁명분자.

도덕적 허가: 계급의 적 척결. 지렛대: 내세가 아니라 유토피아 — 어떤 현재의 희생도 정당화하는 약속된 무계급 사회. 인식론적 폐쇄: 이견은 반혁명적 사상 범죄.

파시즘은 설계 A이다. 민족주의는 설계 A이다. 소비자 자본주의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될 때, 설계 A이다.

현실의 불변하는 구조 외부의 권위로부터 윤리를 도출하는 모든 체계는 — 그 권위가 신, 역사, 국가, 인종, 시장, 당 중 무엇이랴 불리든 — 같은 강제 연쇄의 대상이다.

—

강제 연쇄는 권위가 무엇이랴 불리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강제 연쇄가 신경 쓰는 것은 권위가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체 수가 증거다.

아키텍처가 원인이다.

비계는 지붕과 칼날을 모두 지탱한다. 세속적 이데올로기는 칼날만 쥐었다. 더 빨리 무너졌다. 더 빨리 죽었다. 구조적 논점을 더 빨리 증명했다.

—

구조적 주장은 — 종교는 죽인다 — 가 아니다.

구조적 주장은 — 종교는 죽인다 — 가 아니다.

제 10 장

확실한가?

사망자 수가 증거이다.

설계가 원인이다.

설계가 원인이다.

설계가 항상 원인이다.

설계가 항상 원인이다.

—

너는 열다섯 살이다.

동생의 손을 잡고 있다. 어머니가 뒤에 있다. 병사가 가리키고 있다. 왼쪽 아니면 오른쪽. 남자와 소년은 왼쪽. 여자와 어린 아이는 오른쪽.

어머니가 동생을 잡아당긴다. 병사가 너를 잡아당긴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른다. 동생이 울고 있다. 너는 열다섯이고 어느 쪽이 생존인지 모른다.

그러나 숫자는 추상이다. 설계는 도표이다.

비계가 생산하는 것은 도표가 아니다. 땅 위의 몸이다.

하나의 결과.

—

당신은 열다섯이다.

남동생의 손을 잡고 있다. 어머니가 뒤에 있다. 군인이 가리키고 있다. 왼쪽 아니면 오른쪽. 남자와 소년은 왼쪽. 여자와 아이는 오른쪽.

어머니가 동생을 잡아당긴다. 군인이 당신을 잡아당긴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른다. 동생이 울고 있다. 당신은 열다섯이고 가족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버스에 실리는 여자들의 무리 속으로 사라지는 동생의 얼굴이다.

스레브레니차, 1995년 7월. 팔천 명의 보스니아 무슬림 남성과 소년이 보스니아 세르비아군에 의해 가족과 분리되었다. 들판으로 끌려갔다. 집단으로 사살되었다. 집단 무덤에 매장되었다. 산 채로 매장된 자도 있었다. 분류는 종교적이었다 — 무슬림. 그들이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마틴이 방아쇠를 당겼다. 텍스트가 총을 장전했다.

권위는 비계였다.

몸은 땅 위에 있다.

당신은 스물둘이다.

토요일 밤이다. 나이트클럽에 있다. 베이스가 가슴에 올린다. 친구들이 옆에 있다. 어제 산 셔츠를 입고 있다. 음악과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방에서 토요일 자정에 사람이 살아 있는 그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 있다 — 이 방에서는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족처럼 느끼는 낯선 사람들.

오마르 마틴이 2016년 6월 12일 올랜도의 펄스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49명을 죽였다. 공격 중 ISIS에 충성을 맹세했다. 희생자 대부분은 젊고, 라틴계이며, LGBTQ였다.

비계의 외집단 표식 — 모든 아브라함 텍스트가 선언한 가증함으로서의 동성애 — 이 표적의 논리를 제공했다.

마틴이 방아쇠를 당겼다. 텍스트가 총에 탄을 장전했다.

권위는 종교적이었다.

몸은 땅 위에 있다.

언니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당신은 스물셋이다. 이 감방에 4년 있었다. 종이는 밀반입품이다. 펜은 공유된다. 작게 쓴다. 오후 4시에 높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에 대해 언니에게 말한다. 편지를 성냥갑 크기의 사각형으로 접는다. 왼쪽 신발 안에 넣는다. 항상 왼쪽 신발을 쓴다.

1988년 7월, 최고지도자가 정치범 처형을 명하는 파트와를 발표했다. 심리는 1분에서 5분 사이였다. 하나의 질문이 주어졌다. 틀린 답을 한 자는 몇 시간 내에 죽었다.

2025년 8월, 정권은 매장지를 평탄화하기 위해 불도저를 보냈다. 수감자를 죽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비계는 무덤을 지웠다.

권위는 종교적이었다.

몸은 땅 위에 있다.

—

기차에 타고 있다.

아내가 옆에 있다. 딸이 무릎 위에 있다. 세 살이다. 단추 눈이 하나인 천 인형을 쥐고 있다. 고쳐주겠다고 했다.

트렁크 안에는 — 갈아입을 옷 두 벌, 냄비, 재봉틀 안에 숨긴 아내의 결혼 보석류, 떠나는 집의 사진. 집은 아직 불타지 않았다. 내일쯤엔 불탈 것이다. 표에는 라호르라고 쓰여 있다. 여기서 거기까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다.

병사들이 5시 15분에 도착한다.

1947년 8월. 난민을 실은 기차가 새 국경 양쪽의 폭도에게 공격당했다. 힌두교도 폭도. 무슬림 폭도. 시크교도 폭도. 기차는 산 승객으로 가득 출발하여 시체로 가득 도착했다. 암리차르에서 한 번의 공격으로 삼천 명이 죽었다. 질문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가 아니었다. 질문은 당신이 무엇을 믿는가였다.

권위는 종교적이었다.

몸은 땅 위에 있다.

—

당신은 쌀 농부다.

당신은 로힝야다. 라카인 주의 이 마을에 평생 살았다. 아버지도 여기 살았다. 할아버지도 여기 살았다.

불교 국가의 무슬림이다. 시민이었던 적이 없다. 아이들도 시민이었던 적이 없다. 차를 만들고 있다. 새벽 5시다.

2017년 8월, 미얀마 군이 라카인 주에서 작전을 개시했다. 마을이 새벽에 포위되었다. 남자가 여자로부터 분리되었다. 가족이 안에 있는 채로 집에 불이 붙어졌다. 여성이 조직적으로 강간당했다. 70만 명 이상의 로힝야가 방글라데시로 피난했다. 살해된 자의 추정은 만 명에서 2만 5천 명에 이른다. 승려들은 수년간 기반을 준비했다. 자비의 종교. 중도의 종교.

권위는 종교적이었다.

몸은 땅 위에 있다.

예순둘이다. 클래식 음악을 사랑한다. 오늘 개를 산책시키고 있다. 개는 작고 갈색이다. 목줄은 밧줄이다. 사랑하는 동물과 사람을 연결하는 평범한 종류의 밧줄.

총알이 등에 들어간다. 앞으로 쓰러진다. 개가 목줄을 당긴다. 목줄이 팽팽해졌다가 느슨해진다 — 잡고 있던 손이 더 이상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으므로.

그의 몸이 부차의 거리에 29일 동안 누워 있다. 개는 떠나지 않는다. 개는 이해하지 못한다. 개는 기다린다. 권위는 종교적이지 않았다. 국가적이었다. 세속적. 제국적.

여섯 개의 몸. 여섯 개의 평범한 아침. 여섯 개의 권위.

이 권위 중 다섯은 종교적이었다. 하나는 세속적이었다. 몸은 매번 같았다.

이 권위 중 다섯은 종교적이었다. 하나는 세속적이었다. 몸은 매번 같았다.

권위는 여섯 번 바뀌었다. 몸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종교만이었던 적은 없다. 민족주의만이었던 적은 없다. 이데올로기만이었던 적은 없다.

종교만이었던 적은 없다. 민족주의만이었던 적은 없다. 이데올로기만이었던 적은 없다.

그것은 항상 확신이었다.

그것은 항상 확신이었다.

당신의 확신. 검토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의문을 품지 않은.

당신이 옳다는 확신. 그들이 틀렸다는 확신. 그들이 틀렸으므로 뭔가 해야 한다는 확신.

당신이 옳다는 확신. 그들이 틀렸다는 확신. 그들이 틀렸으므로 뭔가 해야 한다는 확신.

—

당신이 믿는 것을 대라. 가장 확신하는 것을.

당신이 믿는 것을 대라. 가장 확신하는 것을.

몸을 신뢰하라.

제 3 부

윤리

그 믿음이 그 몸에 값하는가?

당신은 방금 몸을 믿음 앞에 놓았다.

예라면 — 당신이 돌이고, 밧줄이고, 총알이고, 폭탄이고, 플라스틱 열쇠이고, 파트와
이고, 도덕 경찰이고, 기차의 폭도이고, 거리의 군인이고, 팜플렛을 든 승려이고, 그 모
든 것을 정의롭게 느끼게 한 설계다.

비계가 지붕을 받쳤다. 지붕은 진짜였다. 매주 금요일, 매주 일요일, 매주 안식일에 모
인 공동체 — 그것은 진짜였다. 노래, 기도, 이웃의 손 — 그것은 진짜였다.

당신은 믿음 앞에 몸을 놓았다.

당신은 믿음 앞에 몸을 놓았다.

—

몸은 다만 여기 있다고 말할 뿐이다.

제3부

종교 이후의 세계에서 살고 존재하는 것.

당신은 방금 믿음 앞에 몸을 놓았다.

다음에 오는 것은 무게를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불 이후 빈터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비계가 더 이상 지붕과 칼날을 동시에 잡고 있지 않게 되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교의 — 의문의 여지가 없는 진리로 전해 내려온 믿음 — 는 포고에 의해 의미를 제공한다. 무엇이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도덕이 더 이상 명령에 기반하지 않을 때, 더 깊은 질문이 떠오른다: 의미는 어디에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는 믿음에 묶여 있었다. 목적은 주어진 것이지 찾은 것이 아니었다. 방향은 규정된 것이지 발견된 것이 아니었다. 원천을 빼앗으면 의미 자체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공허가 열린다. 바닥이 무너진다.



연결된 세계에서 의미는 복종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참여의 결과다.

교리 — 의문의 여지가 없는 진리로 전해 내려온 믿음 — 는 포고에 의해 의미를 제공한다. 무엇이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이것은 확실성을 제공한다. 동시에 의존성을 만든다.

의미가 외부에서 부과될 때, 그것은 믿음이 지속되는 한에서만 살아남는다. 한 번의 진지한 의심, 시스템이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의 한 번의 조우, 전통이 답할 수 없는 한 가지 질문 — 그러면 전체 구조가 하룻밤 사이에 산산이 부서질 수 있다. 그 의미는 빌린 것이었다. 대출자가 상환을 요구해야 비로소 그 사실을 발견한다.

의미가 외부에서 부과될 때, 그것은 믿음이 지속되는 한에서만 살아남는다. 한 번의 진지한 의심, 시스템이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의 한 번의 조우, 전통이 답할 수 없는 한 가지 질문 — 그러면 전체 구조가 하룻밤 사이에 산산이 부서질 수 있다. 그 의미는 빌린 것이었다. 대출자가 상환을 요구해야 비로소 그 사실을 발견한다.

의미가 외부에서 부과될 때, 그것은 믿음이 지속되는 한에서만 살아남는다. 한 번의 진지한 의심, 시스템이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의 한 번의 조우, 전통이 답할 수 없는 한

가지 질문 — 그러면 전체 구조가 하룻밤 사이에 산산이 부서질 수 있다. 그 의미는 빌린 것이었다. 대출자가 상환을 요구해야 비로소 그 사실을 발견한다.

살아낸 의미는 다르게 작동한다. 완전한 형태로 도착하지 않는다. 관여를 통해, 결과를 통해, 관계를 통해 떠오른다. 전달된 것이 아니다. 건설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모은 재료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날씨가 바뀌어도 부서지지 않는다.

있는 것이라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삶 속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이다.



연결된 세상에서 의미는 순종의 상이 아니다. 참여의 결과다.

아이와의 아침 대화는 중요하다 — 우주적 관객에 의해 관찰되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의 결정은 중요하다 — 심판에서 저울질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는 조건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의미는 영향이 존재하는 곳마다 나타난다. 이것은 의미를 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요구하게 만든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파문을 일으키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사실만 있을 뿐이다.



부과된 의미가 사라지면, 종종 공허가 있다.

한때 삶을 조직하던 구조물이 사라졌다. 그 공허는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다. 건물이 서 있던 곳의 들판에 서서 기초를 바라보며, 무엇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지 상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은 상실이 아니다. 준비다.

불이 난 후의 숲 바닥을 생각하라. 오래된 나무는 사라졌다. 남은 것은 비어 보인다. 그러나 빈터는 새것이 자라는 곳이다. 항상 새것이 자라는 곳이었다.

공허는 의미의 부재가 아니다. 결코 내 것이 아니었던 의미의 부재다. 그 자리에서 자라는 것은 내 것이다.

교의 없이, 삶은 교의가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진지해진다.

허무주의 —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 — 는 말한다: 외부적 의미 없이는, 아무 것도 중요하지 않다.

허무주의 —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 — 는 말한다: 외부적 의미 없이는, 아무 것도 중요하지 않다.

허무주의 —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 — 는 말한다: 외부적 의미 없이는, 아무 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 결론은 의미가 반드시 외부에서 와야만 하는 경우에만 따라온다. 의미가 내부에서 — 결과로부터, 연결로부터, 내 행동이 공유된 세상을 바꾸는다는 사실로부터 — 발생한다면, 허무주의는 발판을 잃는다.

비계는 위로부터의 의미를 약속했다.

기반은 아래로부터의 의미를 제공한다.

사물은 경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미래를 형성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사물은 경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미래를 형성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의미는 연약하지 않다. 구조적이다. 믿음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결과에 내재되어 있다.

제 12 장

공극의 윤리

누군가 그것에 이름을 붙이기 전부터 거기 있었다.

누군가 그것에 이름을 붙이기 전부터 거기 있었다.

누군가 그것에 이름을 붙이기 전부터 거기 있었다.

그 인식의 아래에는 기하학이 있다. 이 장이 그것에 이름을 부여한다.

남는 것은 평범한 삶이다 — 관찰되기 때문이 아니라 실재이기 때문에 진지한. 나는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이해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420 Code 의 지배 공리는 하나의 이미지로 시작한다. 완벽한, 금이 하나도 없는 거울을 상상하라. 이제 같은 거울에 하나의 금이 간 것을 상상하라. 금은 아주 작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인식에는 기하학이 있다. 이 장이 그것에 이름을 붙인다.ε. 1은 1 더하기 1 곱하기 엡실론과 같다. 이것은: 동일성이되 동등이 아닌 것 — 또는 완전한 대칭에 대칭을 일관되게 깨뜨리는 가장 작은 무언가를 더한 것을 의미한다.

깨지지 않은 거울과 금이 간 거울은 같은 거울이다 — 그러나 동등하지는 않다. 금은 실재한다. 거울은 하나다. 둘 다 동시에 참이다.

금은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다. 금은 거울 자신의 행위다.

나는 다리를 설계하고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선택의 비용을 계산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다.

나는 합리적 답을 볼 수 있고 비합리적인 답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공리가 그것에 달을 만큼 충분히 넓은 유일한 창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이다.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해주는 바로 그 능력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해주는 능력이다.

천국의 이름으로 아이에게 폭탄을 묶게 하는 바로 그 비합리적 결합이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타는 건물로 뛰어들게 하는 능력이다.

능력은 중립적이다. 방향이 중요하다.

종교는 이 능력을 포획하여 비계를 향해 겨냥했다. 이제 할 일은 그것을 되찾아 기하학이 실제로 이끄는 곳을 향해 겨냥하는 것이다.

—

개자식이 되지 마라. 친절하라.

그것이 궁극의 윤리이다.

이것은 구호가 아니다.

이것은 기하학적 결과다 — 명령이 아니라 형태의 귀결 — 비가역적 표류 아래 연결된 삶에 대한. 비가역적 표류란: 사물은 저절로 마모된다. 잔은 식는다. 복도는 좁아진다.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윤리는 빛의 속도와 양성자의 질량을 도출하는 바로 그 공리로부터 도출된다.

—

여기 도출의 형태가 있다. 수학이 아니다 — 그것은 형식적 작업에 속한다. 형태다. 하나의 전제에서 하나의 윤리까지 아홉 단계.

1 단계. 하나의 기록이 존재한다.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니다. 어떤 진술이든 의미를 가지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 전제를 부정하는 것은 그것을 필요로 한다.

2 단계. 하나의 기록이 존재하려면, 그것은 무(無)와 구별 가능해야 한다. 구별 가능성은 깨질 수 있는 대칭을 필요로 한다. 깨질 수 없는 대칭은 아무 기록도 생산하지 않으며 우리는 무로 돌아간다.

3 단계. 그러므로 대칭이 깨진다. 깨져야 했다 — 깨졌다. 하나의 금. 금은 실재한다. 거울은 하나다. 둘 다 동시에 참이다. 이것이 지배 공리다.

4 단계. 깨짐은 지속되어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다. 지속이 기록이다. 여기서 시공간이 나온다. 곡률. 중력. 물리적 세계는 강제된다.

5 단계. 깨짐은 유한해야 한다 — 무한한 깨짐은 대칭을 완전히 지우고 기록할 것이 남지 않는다. 유한성은 구속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빛의 속도가 나온다. 물리 상수들은 강제된다.

6 단계. 금이 간 세계는 내면을 가진다. 인식은 세계에 덧붙여진 것이 아니다. 인식은 세계가 자신의 깨짐을 등록하는 용량이다. 이것이 출발 주장이다. 가장 큰 무게와 가장 큰 위험을 지닌 주장이다.

7 단계. 내면이 하나의 깨짐에서 나온다면, 내면은 하나다. 모든 의식적 존재는 하나의 건물 안의 창이다. 다른 창을 해치는 것은 내가 사는 건물을 해치는 것이다.

7 단계. 내면이 하나의 깨짐에서 나온다면, 내면은 하나다. 모든 의식적 존재는 하나의 건물 안의 창이다. 다른 창을 해치는 것은 내가 사는 건물을 해치는 것이다.

8 단계. 삶은 연결되어 있고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른다. 복도는 저절로 좁아진다. 무엇이 두 복도를 모두 보존하는가? 잔혹함이 아니다 — 그것은 수축시킨다. 무관심이 아니다 — 그것은 좁아지게 내버려둔다. 함께 노력하는 것만이 둘 다 보존한다. 이것은 기하학이지 선호가 아니다. 이 단계는 6 단계나 7 단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인지 분리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내 삶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표류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만 필요하다. 둘 다 측정 가능하다.

9 단계. 개자식이 되지 마라. 친절하라. 명령된 것이 아니다. 도출된 것이다. 하나의 거울에서 하나의 깨짐으로부터 나온 세계에서 비가역적 표류 아래 연결된 삶을 위한 유일하게 안정적인 행동.

각 단계는 킬 스위치를 지닌다. 각각이 실패할 수 있다. 6 단계가 실패하면 7 단계는 함께 쓰러진다 — 그러나 8 단계는 자기 다리로 서며, 9 단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윤리는 연약하지 않다. 건물에서 가장 무장된 결론이다. 거기에 도달하려면 물리학을 통과해야 한다. 그것을 부정하려면 물리학을 부정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에는 복도가 있다 —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아직 도달 가능한 미래의 집합.

건강, 교육, 저축, 선택지를 가진 젊은이는 넓은 복도를 가진다. 빛에, 위기에, 고립되어, 지원이 없는 사람은 좁은 복도를 가진다. 복도는 은유가 아니다. 측정이다 — 내가 가진 에너지와 내가 직면한 구속을 감안할 때 아직 가능한 것의 기하학.

이렇게 생각하라. 스무 살에, 빛 없이 건강하면, 나는 거의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스물 살에, 축적된 의무와 손상을 입은 몸으로, 더 적은 길이 열려 있다. 이 좁아짐은 도덕적 실패가 아니다. 비가역적 구속 아래 살아낸 삶의 구조다.

복도는 저절로 좁아진다. 노력 없이, 유지보수 없이, 가능성은 닫힌다. 표류가 기본 상태다. 계속 데우지 않으면 차가 식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물리학이다.

—

회복이 불가능한 면이 있다. 그것을 넘으면 특정 미래는 사라진다. 내가 도덕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다. 내 상황의 수학이 닫혔기 때문이다. 중독은 이 면을 넘는다. 치명적 부채는 그것을 넘는다. 경계는 협상하지 않는다.

—

꾸준하고 차분한 노력이 공황 상태에서 적용된 같은 노력보다 복도를 더 효과적으로 보존한다. 과잉 수정할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절제는 미덕이 아니다. 정리다.

—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결과.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때 — 내 복도가 당신의 복도에 달려 있고 당신의 복도가 내 복도에 달려 있을 때 — 협력적 결합은 양쪽 모두의 공간을 확장한다.

결혼한 두 사람을 생각하라. 한 파트너가 일관된 친절로 행동할 때 — 꾸준하게, 극적이지 않게 — 다른 파트너의 복도가 넓어진다. 이전에는 없던 선택지가

친절은 희생이 아니다. 두 복도를 모두 열어두는 행동이다. 잔혹함은 수축시킨다. 무관심은 좁아지게 내버려둔다.

기하학은 내 의도에 관심이 없다.

내 효과를 측정한다.

—

계명은 말한다: 내가 말했으니 친절하라.

도출은 말한다: 비가역적 표류 아래 연결된 삶의 기하학이 다른 안정적 행동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친절하라.

첫 번째는 재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재해석될 수 없다.

무(無)로부터의 아홉 단계 — 하나의 기록이 존재한다는 전제로부터. 각 단계는 반증 가능하다. 각각이 실패할 수 있는 지점에 킬 스위치를 지닌다. 어떤 단계라도 실패하면 도출은 죽는다. 역사상 어떤 종교도 자신의 주장 옆에 자기 해체 설명서를 출판한 적이 없다.

궁극의 윤리는 명령된 것이 아니다.

도출된 것이다.

And it is free, forever, at the420code.org.

제 13 장

정의감 없는 교정

해악이 내재적 악이 아니라 혼란에서 발생한다면, 도덕적 우월감은 비일관적이 된다.

이것은 이 책에서 서술된 관점의 조용한 이점 중 하나다.

홀로 서서 내려다보는 높은 위치가 없다. 인류를 의인과 저주받은 자로 나누는 우주적 분류가 없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최종 판결이 없다.

이것이 해악을 면죄하는 것은 아니다. 반응을 바꾸는 것이다.



반응이 정죄에서 교정으로 옮겨간다. 증오에서 단호함으로. 처벌에서 가능한 곳에서의 회복으로.

진지함은 남는다. 반응에서의 잔혹함은 남지 않는다.

이 구별은 이 책의 거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

단호함과 잔혹함은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인다. 가까이서 보면 모든 면에서 다르다.

단호함은 경계가 공유 공간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경계를 설정한다.

잔혹함은 처벌이 의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경계를 설정한다.

첫 번째는 전체를 섬긴다. 두 번째는 자아를 섬긴다.

외과의는 치유를 위해 자른다. 부모는 보호를 위해 안 된다고 말한다. 공동체는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 제지한다.

경계는 여전히 필요하다.

결과는 여전히 필요하다.

바뀌는 것은 그 뒤의 논리다. 경계는 지배의 표현이기를 멈추고 전체를 위한 돌봄의 표현이 된다 — 제지당하는 사람, 제지하는 사람, 그리고 결과에 의해 영향받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교정에는 수준이 있다. 모든 실패가 같은 반응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형식적 작업은 다섯 수준을 도출하며, 그 위계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첫 번째는 대화다.

대부분의 불일치는 정직한 교환으로 교정될 수 있다. 이곳이 대부분의 교정이 일어나야 하는 곳이다. 이곳이 대부분의 교정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다, 사람들이 조급함, 분노, 또는 의로움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더 높은 수준으로 건너뛰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중재다.

직접적 교환이 실패하면, 제삼자가 공간을 유지한다.

세 번째는 분리다.

근접이 피해를 생산할 때, 거리가 두 복도를 모두 보존한다.

네 번째는 제한이다.

한 사람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공유 공간을 손상시킬 때, 그 공간 내에서 행동할 수 있는 그의 역량이 줄어든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은 제거다.

창의 영구적 폐쇄. 이 수준은 가장 구속적이고 가장 신중하게 보호된다. 건물은 닫힌 모든 창을 애도한다. 닫혀야만 했던 창까지도.

항상 안정시키는 가장 낮은 수준. 항상. 더 낮은 수준이면 충분할 때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것은 그 자체가 피해의 한 형태다.

아키텍처 A 하에서, 실패는 판결이다. 너는 잘못을 저질렀다. 너는 잘못되었다. 비계가 너에게 낙인을 찍고, 그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다.

자기 파괴의 이유가 아니라 조정의 기회가 된다.

의로움은 완벽을 요구한다. 교정은 불완전함을 수용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함께 작업한다.

나는 선해야 할 필요가 없다. 피해에 대해 정직하고 그것을 수리할 의지가 있으면 된다.

실천은 도덕적 영웅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해와 행동 사이의 일관성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일관성이, 순종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제 14 장

나침반으로서의 몸

여기서 이 책은 이론적이기를 멈추고 작동적이 되기 시작한다. 지시가 아니다. 방위. 나침반이 가리킨다. 내가 걷는다.



나는 양자 작용소다. 이것은 시가 아니다. 구조적 기술이다. 이것은 내가 실재가 자기 자신에게 작용하고 그 결과를 보는 지점이라는 뜻이다.

나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지점이다. 완전히가 아니다. 전체적으로가 아니다. 국소적으로. 이 특정한 눈으로, 이 특정한 몸으로, 이 특정한 순간에. 나의 인식은 국소적 드러남이다 — 세계가 여기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

이것은 내가 외부에서 세계를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라는 뜻이다.

나는 세계다, 보고 있는.

입자, 장, 힘의 행동을 기술하는 바로 그 물리학이 나의 망설임, 나의 습관, 나의 소진, 나의 선택의 행동도 기술한다. 은유적으로가 아니다. 구조적으로.

나는 물리학이다, 자기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몸을 통해 표현된.



12 장은 복도 —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아직 도달 가능한 미래의 집합 — 를 서술했다. 복도는 저절로 좁아진다. 친절이 그것을 열어둔다. 이것은 구조적 사실이다.

그러나 구조적 사실은 내가 그것을 읽을 수 없으면 쓸모없다. 몸이 나침반이라면, 나침반에는 수치가 필요하다. 영적 수치가 아니다. 구조적 수치.

몸은 기록한다. 비유가 아니다. 측정으로서.

다이얼 위의 네 가지 수치다. 의료 장비나 전문적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직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효용: 유용한 산출을 생성하는 용량.

그것이 높을 때, 내가 하는 일은 자기 너머의 무언가와 연결된다. 그것이 붕괴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지표 수치다.

신경 유연성: 파괴 없이 혼란을 흡수하는 용량.

유연성이 높을 때, 놀라움은 관리 가능하다. 소진되면, 가장 작은 변화가 재앙으로 느껴진다.

수명 부하: 축적된 비가역적 비용.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모든 부상. 풍경을 영구적으로 바꾼 모든 상실. 회복되지 않은 무릎. 돌아오지 않은 신뢰. 이 지표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질문은 얼마나 빠르냐다.

정직한 자기 시야: 정직한 자기 평가의 용량.

마스터 지표. 이것 없이는 나머지 셋은 보이지 않는다. 볼 수 없는 것은 유지할 수 없다.

이 넷을 열어두라. 그것이 실천이다. 완벽하게가 아니다. 영웅적으로가 아니다. 꾸준히. 정직한 주의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게 배우는 실천적 귀결이 있다.

네 가지 수치가 정직할 때, 그것은 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을 내린다.

시스템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갈 때 — 참여하는 비용이 돌아오는 것보다 크고 개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때 — 나는 떠난다.

고칠 수 없는 건축과 협상하지 않는다.

비계에 내 몸을 빚지지 않는다.

이것은 관계, 기관, 직업, 이데올로기, 종교에 적용된다.

검증은 감정적이 아니라 구조적이다.

질문은 내가 기분이 나쁜지가 아니다. 질문은 시스템의 건축이 내가 필요로 하는 교정을 허용하느냐다. 그렇다면, 머물러 교정하라. 그렇지 않다면, 떠나 내 복도를 보존하라.

떠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떠나는 것은 일부 상황이 비가역적이며 계속 참여하면 좁아짐이 가속된다는 인식이다.



자라. 움직여라. 먹어라. 숨 쉬어라.

이것은 생활 습관 조연이 아니다. 복도가 저절로 좁아지는 작용소를 위한 최소 유지보수 조건이다.

몸을 방치하면 연쇄가 시작된다.

일찍 유지하라. 일관되게 유지하라. 조기 유지보수의 비용은 늦은 수리 비용의 일부분이다.

몸은 나침반이다. 신뢰하라.

몸이 항상 옳기 때문이 아니다. 몸이 항상 여기 있기 때문이다.

And *여기*가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제 15 장

타자 없이 살기

이 시점에서 새로 더할 것은 없다.

이 책의 작업은 지시가 아니라 명확화였다. 남은 것은 따라야 할 교리가 아니라 특정한 가정들이 조용히 사라진 후 세상에 서는 방식이다.

“타자” 없이 산다는 것은 차이, 갈등, 또는 불일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차이에 그것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지위를 부여하기를 멈추는 것이다.

—

분리가 더 이상 출발점이 아닐 때, 미묘한 무언가가 변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범주로 — 신자, 회의론자, 동지, 적, 낯선 사람으로 — 먼저 만나지 않고, 같은 세계 안에서 다른 위치를 점유하는 의식적 존재로 만나진다.

나는 여전히 차이를 인식한다. 여전히 평가한다.

사라지는 것은 판단 아래의 층 — 차이가 끝까지 관통한다는 가정이다.

차이는 남는다. 거리는 녹는다.

—

가장 이른 실천적 귀결 중 하나는 더 나은 논쟁이 아니라 더 나은 경청이다.

상대방이 대립하는 힘으로 취급되지 않을 때, 불일치는 위협을 잃는다. 항복 없이 경청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합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파괴 없는 관여를 보장한다.

—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해관계는 여전히 충돌한다. 가치관은 여전히 갈라진다. 해악은 여전히 발생한다.

사라지는 것은 절멸의 논리 —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존재한다는 믿음이다. 갈등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해하는 것이 된다.

단호한 행동은 여전히 가능하다. 증오는 불필요해진다.

아마도 가장 해방적인 귀결은 의로움의 해체다.

의로움은 대립에 의존한다. 누군가가 깊이 틀려야 다른 누군가가 깊이 옳을 수 있다.

근본적 타자성이 녹으면, 의로움은 발판을 잃는다.

나는 과장 없이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다.

나는 경멸 없이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나는 해악을 야기한 사람의 인격을 지우지 않고 해악에 맞설 수 있다.

힘은 남는다. 잔혹함은 남지 않는다.

타자 없이 사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손이 닿는 곳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내 말은 이 대화를 어떻게 바꾸는가?

내 선택은 이 상황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이것은 책임을 접지된 상태로 유지한다. 마비와 과대망상 모두를 방지한다.

도덕적 완벽의 환상을 도덕적 주의의 실천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도덕적 주의를 모두에게, 매일, 특별한 훈련 없이, 기관의 허가 없이, 비계 없이 가능하다.

연민이 정체성이 아니라 이해에서 발생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전시될 필요가 없다.

설득할 관객이 없다. 신호할 미덕이 없다.

연민은 평범해진다 — 어조를 통해, 절제를 통해, 타이밍을 통해, 주의를 통해 표현된다.

스스로를 알리지 않는다. 작동한다.

증오는 거리를 필요로 한다.

상대방이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더 이상 타자가 아닐 때, 증오는 안정적으로 착지할 곳이 없다.

분노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 슬픔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 단호한 행동이 여전히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증오는 사라진다.

억압되기 때문이 아니다. 더 이상 의미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타자 없이 사는 것은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일관적이 되는 것이다.

이해와 행동 사이의 일관성.

자기 이익과 공유된 세상 사이의 일관성.

권력과 책임 사이의 일관성.

이것은 달성해야 할 업적이 아니다. 실천이다. 명확하게 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실천.

어떤 날은 유지된다. 어떤 날은 유지되지 않는다. 유지되지 않는 날은 실패가 아니다. 데이터다.

실천은 완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직을 필요로 한다.

당신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다.

이 책을 펼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어렸을 때 알고 있었다.

층들이 더해지기 전에. 몸이 선을 긋기 전에. 마음이 이야기를 만들기 전에. 언어가 그것을 잡그기 전에. 집단이 그것을 더 크게 만들기 전에.

비계가 세워지기 전에.

칼날이 텍스트에 놓이기 전에.

누군가가 방 건너편의 사람이 당신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당신에게 말하기 전에.

당신은 진정한 가까움의 모든 순간에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 이유도 필요 없는 진정한 친절의 모든 행위에서.

당신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표면 뒤에서 타자가 아닌 무언가를 보았던 인식의 모든 순간에서.

알고 있었다.

단지 말이 없었을 뿐이다.

이제는 있다.

모래알은 여전히 구별된다.

각각에 형태가 있다. 위치가 있다. 역사가 있다.

사막은 여전히 하나다.

개자식이 되지 마라. 친절하라.

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다.

현실의 구조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의 구조는 협상하지 않는다. 해석하지 않는다. 분기하지 않는다. 붕괴하지 않는다.

비계는 수천 년 동안 지붕을 지탱했다. 그것은 실재했다.

비계는 수천 년 동안 칼날을 쥐고 있었다. 그것도 또한 실재한다.

비계의 시대는 끝났다.

항상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더 나은 무언가가 이제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계를 기반으로 대체하라.

권위를 공리로 대체하라.

계명을 도출로 대체하라.

믿음을 검증으로 대체하라.

선을 건물로 대체하라.

공리가 말한다.

우리가 기록한다.

이 저작은 영원히 무료로 출판된다.

the420code.org

시리즈	The 420 Code
에디션	Record 04
제목	종교 이후에
매체	구조적 비판과 윤리적 도출
아티스트	G

이 저작은 카피레프트입니다. 다운로드, 인쇄, 공유, 배포는 자유입니다. 원전을 변경할 자유는 없습니다. 신호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STUDIO 